

만남

07

2023
통권 593호

특집 하프타임 재정비



CONTENTS

이달의 말씀

02 돌아서 가라 하실 때 김운성

특집 하프타임 재정비

- 05 성경! '열공'이 필요한 이유 탁현수
- 07 이야기로 성경 읽기, 아이 영적경험 '쑥쑥' 방덕중
- 10 '거룩한 독서' 어렵지 않습니다 권혁일
- 13 찬양, 하나님 향한 기쁨과 감사의 노래 장세완
- 16 영락기도원 특별금요산상기도회 목양부

05



20

다음세대

- 18 힌구름 뭉게뭉게...여름성경학교 개학 교육부
- 20 '은혜의 도미노'를 세워가는 중등부 강하림
- 22 내 맘 와당은 노랫말 찬양이 좋아졌어요 김미주
- 23 영락 고등부, 몽골을 간다 김태용
- 24 예수님 마음 닮은 '섬김의 자리' 이빛나
- 25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했습니다 나태권·정애슬·이효빈
- 28 누가 복음 외치는 청년들 청년부 78대 회장단
- 30 축구로 예수님 사랑 전합니다 김승태

특별기고

- 32 한미동맹 70주년, 평화·번영의 굳건한 토대 이재규

교회표어

말씀따라 행진하라
(만수기 9:23)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 건강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 세상에서 하나님공의의 실현

5대 본질



만남

2023년 7월호 통권 593호



43

땅끝까지 이르러

- 34 복음통일 또 다른 우리의 소명 김은섭
- 36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허명욱
- 38 송약기도처, 통일을 기도로 준비하는 곳 조경진
- 39 2023년 북한선교대회 스케치 김경옥
- 40 날마다 하나님 기적을 고백합니다 강병화

야곱의 우물가

- 43 영락가족사진 페스티벌 정경섭
- 48 여호와 이레 김하영
- 50 남편과 14년만에 데이트 이경은

문화광장

- 52 나는 하나님의 광대입니다 인 미
- 54 나의 길을 그가 아시나니 정준희

교회소식

- 55 영락교회 은퇴제직상조회 신규가입 안내
- 56 제2여전도회, 십자군교회 헌당감사예배 드려 외
- 64 성전을 위한 그림 시리즈 1~3 정재원
영락시어터 7월 상영 영화

7월 목회력

- 01 토 •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
- 02 주일 • 사랑부·청년부예배 성찬, 세례·입교식, 찬양예배 성찬
- 07 금 • 특별금요산상기도회 1차
- 09 주일 • 제직회
- 14 금 • 특별금요산상기도회 2차
- 16 주일 • 남선교회헌신예배
- 21 금 • 특별금요산상기도회 3차
- 23 주일 • 사회봉사주일, 심방준비회, 3040연합예배

표지설명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별들과의 만남은 다음세대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체면과 권위를 벗기는 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걸음을 벗으시고 제자들을 섬기심같이, 우리도 걸음을 벗어 버리고 큰 웃음으로 함께 뛰며 2023년 하반기를 시작해 보실까요?

돌아서 가라 하실 때

김운성 위임목사



**백성이 호르 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민수기 21:4)**

목사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잠언 29:18). 비전이 없으면 사람들은 목적을 잃고 방향하게 됩니다. 크고 아름다운 비전과 꿈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큰 비전은 때때로 우리를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신 개발지역에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목사님의 가슴은 부흥하는 큰 교회를 이루겠다는 포부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조급해졌고,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획정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조립식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예배당을 가지는 게 일차 소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얼마 후 도로가 나면서 예배당은 헐리고 말았습니다. 목사님과 얼마 되지 않던 성도들은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 목사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사람이 앞설 때 실패한다는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목사님께서서는 성도들과 마음을 추슬러서 근처에 예배 처소를 준비하여 몇 년을 견디었습니다. 고통을 참고 견딘 열매는 달았습니다. 주변이 정리되고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서 예배당이 헐린 것을 안 행정당국의 배려로 종교 부지를 얻었고, 번듯한 건물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목사님께서서는 믿음으로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명심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행을 위해 버스를 탔다면 버스가 자신을 목적지에 데려갈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신뢰요 믿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순종하고 기다리면 가나안으로 이끄십니다.

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존귀하게 사용하시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믿음이 흔들립니다. 다시 앞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버스가 자신이 생각하던 코스로 가지 않을 때 의심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자기 생각으로는 버스가 경부고속도로를 통해서 가리라고 예상했는데, 전혀 다른 길로 접어들면 의심이 생깁니다. 이 버스가 자신을 목적지에 데려다 줄 것인지 의심하게 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런 의심은 잘못입니다. 버스는 공사로 인해 혼잡한 도로가 아닌, 새로 개통된 더 좋은 도로로 가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믿고 편안히 기다리면 목적지에 도착할 것입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코스가 다르면 어떻습니까? 손님은 기사를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생각을 앞세운 나머지 신뢰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에돔 자손의 땅이 그들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으로서는 그 땅을 통과하는 것이 가나안으로 가는 빠른 길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을 막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 땅을 통과하는 대신 돌아서 가게 하셨습니다. 돌아가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이 '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마음의 상처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까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차라리 애굽에서 죽

는 편이 나았겠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 결과 불뱀에 물리는 재앙을 만났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의 해결책으로 늦으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그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늦뱀을 보는 사람은 모두 살았습니다. 그냥 치유하실 수도 있는데, 늦뱀을 바라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믿음을 회복하게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길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무너진 것이 불행의 원인이었으므로,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였던 것입니다. 고개를 들어 늦뱀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시였습니다.

하프타임...필요한 건 하나님 향한 굳센 믿음

2023년의 절반을 살았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지치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연초의 계획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는 자책 때문입니다. 마음만 조급하고 얻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기다리게 하시거나 돌아가게 하시지만, 반드시 우리를 목적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기다리고 순종하면 우리를 가나안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멈춰 서서 숨을 돌리고 뒤를 돌아보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허리띠를 동여매고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과 영락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끄실 줄 믿습니다. **만남**

The page features a light green background with a watercolor illustration of various green leaves scattered across the top and right sides. At the bottom, there is a semi-circular clock face with Roman numerals (X, XI, XII, I, II) and hands, partially obscured by more green leaves.

하프타임 재정비!

2023년 한해의 절반을 넘긴 7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정돈해볼 시기입니다.
일상 속에 녹아든
말씀과 기도, 묵상 그리고 찬양으로
주님께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합니다.



성경! '열공'이 필요한 이유

어떤 종류의 문서든 기록된 문서는 저마다의 상황이 있기 마련입니다. 담벼락에 휘갈겨 쓴 낙서가 되었던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가 되었던, 기록된 문서는 그 내용이 기록되기까지 구체적인 배경과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에 입대한 아들에게 편지를 쓴다면 아들이 지내는 군 부대 상황, 아들이 맡고 있는 부대 내 역할과 다양한 훈련 등의 상황을 반영하여 편지를 쓰게 될 것입니다. 또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 내용이 상이해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할머니가 쓰는 내용과 여자 친구가 쓰는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편지 하나를 놓고도 그 주변 상황과 주고받는 인물이 누군가에 따라 편지의 내용, 편지에 사용되는 단어, 편지의 분량 등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록된 시간만 1500년...당대 사회상 알아야

성경이 많은 사람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① 수천년 전의 사건(인물, 사건, 대화)들이 ② 살았던 지역, 문화, 신분 등 모든

것이 달랐던 40여 명의 사람을 통해 ③ 최소 1,500년의 시간에 걸쳐서 기록된 문서입니다. 때문에 그 당시의 상황, 문화, 가치관, 역사적 사건 등 매우 방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각 본문은 저마다의 다양한 상황과 배경을 갖고 있으며,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배경과 상황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꼭 수반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그 기록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왜 썼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등의 내용을 알고 읽어야만 본래의 메시지를 바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경 기자(성경의 유일한 저자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기자라 표현)들이



탁현수 목사
고양·파주교구
제자양육훈련부(소그룹)

성경 본문을 기록할 때, 자기가 살고있는 당대의 사회 풍습이나 정치 제도, 사회상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성경의 기자들은 자기가 쓴 본문을 읽는 독자들이 자기가 속한 시대의 문화와 가치관과 생활 습관에 익숙하리라 가정하고 본문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서의 본문은 수천 년 역사를 간직한 구약의 히브리 전통과 문화, 신약 시대 사회 전반에 펼쳐져 있던 그리스 전통과 문화, 당시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전통과 문화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상황을 배경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러한 내용을 모르는 수 천 년 뒤의 우리가 성경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연구·공부 없으면 자의적 해석 빠질 수도

따라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노력 이상이 필요합니다. 성경 통독도 중요하고 정독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각 본문이 기록된 당시의 시대상과 등장인물의 특징, 본문 안에 담겨 있는 문화와 전통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노력이 전제되어야만 큐티를 통한 말씀 묵상도 더욱 깊이 있고 올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이런 노력이 없는 상태에서 본문을 읽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본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주관적으로 적용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본문의 본래 뜻은 그렇지 않는데 지금 내 상황에 맞춰, 내 경험에 빚대어 이해하거나 내게 필요한 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주관적, 자의적 해석과 묵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객관적인 성경 공부, 연구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자료는 지금 시대에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성경 단어 사전, 성구 사전, 성경 지도, 각종 주석서와 스터디 바이블, 역본별 성경 등 수많은 자료를 접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영락교회에는 모든 교우를 위한 <한경직목사기념도서관>이 있고 그 안에는 다양한 양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성경을 공부할 수 있고 훨씬 더 깊이 성경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마저도 어려우시면, 교회 내 제자양육훈련부에서 마련한 다양한 성경 공부반에 등록하셔서 좋은 목사님들을 통해 배우실 수 있습니다.

휴가철, 성경의 세계로 여행하기 ‘딱’

성경은 어려운 책입니다. 분량도 66권, 1,189장, 31,102절로 결코 적지않습니다. 게다가 성경은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냥 읽는다고 깨달아지는 종류의 책이 아닙니다. 겸손히 기도함으로 대해야 하는 책이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노력이 있어야만 바르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책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알 수 없도록 하나님의 뜻을 말씀 안에 꼭꼭 숨겨두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겸손히 은혜를 구하며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사람에게 더 깊은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무더위의 계절을 맞아 휴가철이 돌아옵니다. 시원한 <한경직목사기념도서관>에서 성경책을 펴고, 성경 사전과 지도와 관련 자료들을 함께 펴놓고 성경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기에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천리길도 한걸음부터이니 이번 여름, 짧은 분량의 서신서를 한번 공부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만남**



이야기로 성경 읽기, 아이 영적경험 '쑥쑥'

여름방학 자녀와 성경읽기 이렇게

‘이야기(story)’란 말은 사전적으로 “어떤 사실이나 현상에 대해 일정한 줄거리(plot)가 있는 말이나 글”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이해시키기 위해 어떤 개념이나 사건에 대해 ‘정의’와 같은 명제적 방법으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이야기’와 같이 줄거리가 있는 방법으로 전달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배려’라는 단어를 설명하고자 할 때, 명제적 ‘정의’를 사용하면,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쓰는 것”이 된다. 그런데, ‘이야기’로서 ‘배려’를 설명하면 다른 접근 방식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수년 전에 초등부를 맡고 있던 한 후배 목사님의 경험을 소개한다. 이 목사님은 초등부 아이들에게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덕목을 가르치기 위해 계획을 세웠다. 아이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 주일의 설교 시간에 다룰 주제에 대해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 주 전에 아이들에게 과제를 주었다. 다음 주일에 다룰 내용이 ‘배려’였으므로, 아이들에게 ‘배려’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자신이 생각

하는 배려를 목사님께 메시지로 보내도록 했다. 유독 한 아이의 답이 인상적이었다. “엄마가 없는 친구 앞에서 엄마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배려’의 개념을 ‘이야기’로 설명한 것이다.

‘배려’는 사전적으로 정의된 것이 설명적으로 더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이야기’로 설명된 ‘배려’는 듣는 사람에게 ‘배려’의 의미를 ‘경험’하게 한다. 이처럼 ‘이야기’는 한 사람의 경험과 또 다른 사람의 경험을 연결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방덕중 목사
교육 총괄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 알려달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명제적 문장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예수님처럼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 전할 수도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들을 수 있겠지만,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일 것이다. ‘이야기’는 직접적인 원리와 원칙을 설명하지 않지만, 간접적인 방식으로 표현되어 우리 마음에 더 강하게 다가오고 구체적인 이미지를 형성토록 하는 힘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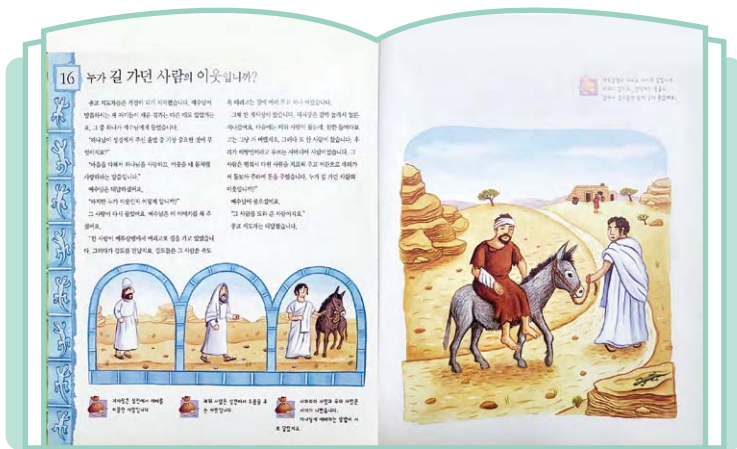
명제적 설명보다 이야기로 풀어줘야 효과

‘이야기’의 이런 특성 때문일까,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어떤 분인지 설명하는 책인 성경을 주실 때 명제적 설명보다는 ‘이야기’ 형식으로 주셨다.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공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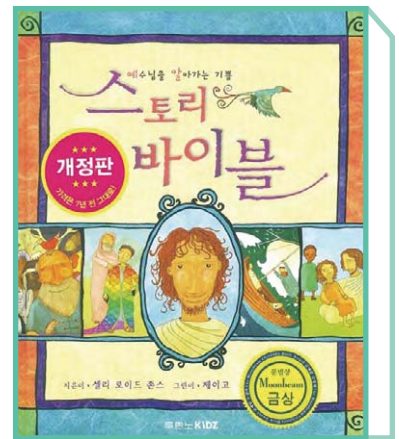
하며, 각자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이미지’를 형성한다.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하나님 이해가 확장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녀와 함께 성경을 읽을 때, 이야기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본질적이고 자녀들의 영적 경험을 더욱 확장하는 데 효과적이다.

많은 부모가 자녀와 함께 성경 읽기를 시작하고 공통으로 마주치는 장애물은 ‘어렵다’ ‘지루하다’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려고 성경 읽기를 강제로 이어가는 것은 좋지 않다. 어린 자녀들에게는 성경이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일로 기억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어른이 되어도 스스로 성경을 읽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으려면 반드시 이러한 ‘긍정적 경험’이 필요하다.

여름방학 동안 자녀와 성경 읽기를 계획하고 있는 가정이라면, 이야기가 중심인 성경을 먼저 읽어보는 것을 권하고 싶다. 구약에서는 창세기와 출애굽기 전반부, 신약에서는 복음서를 추천한다. 이 책들



『예수님이 누구예요?』
사라 홀 글, 리자 버크셔 그림, 김서정 옮김, 몽당연필, 2002년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 스토리 바이블』
셀리 로이드 존스 지음, 제이고 그림, 두란노, 2021년

에는 ‘이야기’ 형식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설명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직접 이야기해주신 내용으로 재미있게 소개되고 있다.

미취학 자녀 가정엔 ‘스토리 바이블’ 추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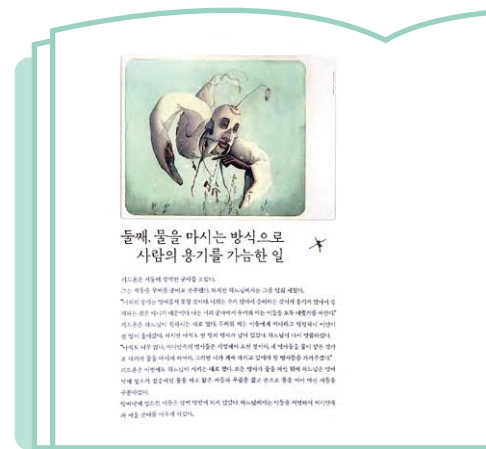
또한, 자녀와 함께 성경을 읽을 때 부모는 자녀의 궁금한 점을 자세히 설명해 주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명제적 방식보다는 ‘이야기’로서 설명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욕심부리지 말고 착한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야 한다”라는 명제적 가르침보다는 ‘홍부와 놀부’ 이야기를 통해 아이들에게 더 힘 있는 교훈을 전달할 수 있다. 개념을 ‘설명’하는 것보다 부모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들려준다면 자녀에게 있어서 성경 읽기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다. 아이들은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먼저 하나님을 전인적으로 경험하게 되며, 부모님의 이야기를 통해 성경의 세계가 현대 세계와 어떻게 연결

되는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경의 이야기와 부모님의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와 연결함으로써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의 참 모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효과적인 성경 읽기 경험을 위해 초등학교 어린 이들을 둔 가정에는 원문의 의미를 잘 살리면서도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적절한 문화적 해석이 반영된 ‘쉬운 성경’ 번역을 추천한다. 또한 미취학 나이와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가정에는 성경의 내용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탁월한 ‘이야기’로 풀어낸 ‘스토리 바이블’을 추천한다. 여름방학 기간 영락의 많은 가정에서 이야기 중심의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만남**



『명화성경』
마리 베르트라, 마리-엘렌느 델발 지음, 이경혜 옮김, 웅진닷컴, 2001년



『바이블-신과 인간이 만들어진 이야기』
필리프 르세르메이에르 지음,
레베카 도트르메르 그림, 전경훈 옮김,
니케북스, 2023년



‘거룩한 독서’ 어렵지 않습니다

읽기·묵상·기도·바라보기...

잘 알려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다양한 방법으로 읽을 수 있다. 나의 경험을 돌아보면 그 중에서도 성장 시기에 따라 주로 사용한 방법들이 구별된다.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에 다니면서 성탄절 발표회나 성경고사 준비를 위해 필요한 구절들을 ‘암송’했다. 그리고 중학생이 되면서는 학습과 세례를 받기 위해 먼저 신약성경을, 그다음에 구약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했다.

그 이후에 말씀을 더욱 진지하게 읽기 시작한 건

‘큐티’(Quiet Time)라는 말씀 묵상 방법을 배우면서였다. 큐티는 관찰, 해석, 적용의 귀납적 성경 연구 방법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방법이다. 나는 청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에는 주로 큐티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다.

그런데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면서 새로운 말씀 묵상 방법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이 글에서 소개하는 ‘거룩한 독서’이다. 거룩한 독서는 고대로부터 내려온 말씀 묵상과 기도 방법인 렉시오 디비나(lectio divina)를 번역한 말이다. 라틴어 ‘렉시오’(lectio)는 ‘읽기/독서’라는 뜻이고, ‘디비나’(divina)는 ‘거룩한/신성한’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이다. 그래서 우리말로 ‘거룩한 독서’ ‘거룩한 읽기’ ‘성독’(聖讀) 등으로 번역되고 있다. 보다 쉽게는 내용을 강조해서 ‘말씀묵상기도’라고 부르기도 한다.

기독교 문헌에서 라틴어 용어인 ‘렉시오 디비나’는 ‘서방 수도원 제도의 아버지’라 일컬어지는 누르시아의 베네딕투스(Benedictus: 480~547)의 수도 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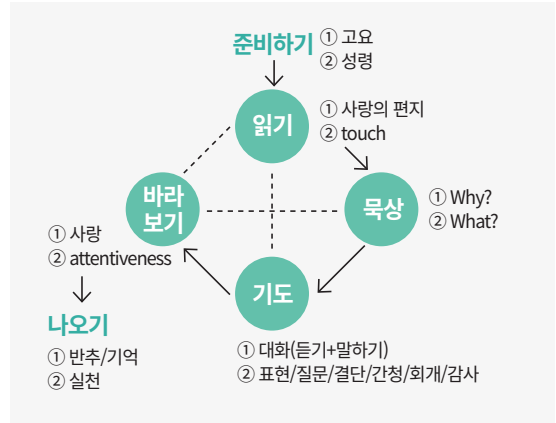
권혁일 목사
동대문·중랑교구
영락기도대
영락수련원

에서 처음 등장했다.¹ 하지만 베네딕투스는 그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렉시오 디비나가 이미 오랫동안 기독교 수도 전통에서 실천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베네딕투스 이전의 교부들의 문헌에서도 ‘거룩한 독서’로 번역될 만한 그리스어 용어가 발견되며, 그 뿌리는 신·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텍스트로 여기고 경건한 마음으로 읽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다.²

이렇게 오랫동안 다양한 지역에서 실천되어 온 거룩한 독서는 항상 하나의 고정된 방식으로 행해지지 않았다. 실제로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되었고, 신·구약 성서 외에도 영성 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부의 글도 독서 자료로 사용되었다. 그래서 12세기 카르투지오회 수도원장 귀고 2세(Guigo II, ?~1188)는 거룩한 독서를 간단하게 정리하고자 했다. 그래서 거룩한 독서를 ① 읽기(lectio) ② 묵상하기(meditatio) ③ 기도하기(oratio) ④ 바라보기(contemplatio)라는 네 가지 요소로 정리하여 소개했고, 오늘날 대부분은 이 방식을 따라 거룩한 독서를 실천하고 있다. 그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읽기

‘읽기’는 말 그대로 말씀을 읽는 것이다. 성경은 오래 전에 특정한 독자를 대상으로 기록되었지만, 지금 우리가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며 읽는다. 마치 ‘하나님의 사랑 편지’를 읽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읽는다. 이



때는 이성을 사용하여 말씀을 분석하고 연구하기 보다는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 다시 말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내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나 단어를 느껴본다. 같은 본문이라도 자기 삶의 정황이나 마음 상태에 따라 이전과는 다른 구절이나 단어가 마음에 다가올 수도 있다. 그래서 거룩한 독서는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는 것, 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를 읽는 것이라 표현할 수 있다.

② 묵상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반복해서 읊조리며 묵상을 시작한다. ‘왜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 걸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라는 질문들을 품고 마음 깊은 곳으로 말씀을 가져가서 반복해서 읊조리며 묵상한다. 이때는 이성뿐만 아니라 마음도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말하는 소리나 하나

1 “게으름은 영혼의 적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은 렉시오 디비나 뿐만 아니라 육체노동을 위한 구체적인 시간을 배정해야 한다.” (누르시아의 베네딕트 지음, 권혁일·김재현 옮김, 『베네딕트의 규칙서』(서울: KIATS, 2011), 91.

2 렉시오 디비나의 성서적, 역사적 배경을 보다 더 자세히 알고자 하면 다음의 글을 참고하라. 권혁일, “거룩한 읽기,” 『오늘부터 시작하는 영성 훈련』(서울: 두란노, 2017), 33-53.

님께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

③ 기도

이렇게 하다 보면, 묵상은 자연스럽게 기도로 이어진다. 기쁨과 감사처럼 긍정적인 감정과 생각이든 슬픔이나 원망처럼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이든 상관없이, 마음 깊은 곳에서 느끼는 것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린다.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반응에 주의를 기울인다. 그래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과의 대화, 곧 기도가 일어난다.

④ 바라보기

하나님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나면, 이제 특별한 순간으로 들어갈 준비가 된다(큐티와 가장 분명히 구분되는 부분이다). 그 순간은 ‘바라보기’이다. 테이트 중인 연인들을 예로 들어보면,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다 했다고 즉시 헤어지지 않는다. 그들은 더는 할 이야기가 없어도 얼마 동안 함께 머물며 서로를 바라보고 사랑을 나눈다. 이는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을 넘어서는 깊은 사랑의 교감이 일어나는 시간이다. 거룩한 독서의 ‘바라보기’도 이와 비슷하다.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사용하던 모든 생각과 언어를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의 현존 안에 머무르며 그분을 사랑으로 바라본다. 그러면 나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에 이르게 된다.

이와 같은 거룩한 독서의 네 가지 요소는 반드시 순서대로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 네 가지 요소는 모두 필요하다. 귀고 2세는 다음과 같이 명쾌하게 말한다.

묵상 없는 독서는 메마르며, 독서 없는 묵상은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묵상 없는 기도는 냉담하고 기도 없는 묵상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기도가 열정적일 때 바라봄에 이르는 것이지만, 기도 없이 바라봄에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그것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수도승의 사다리』, 12장)

읽기·묵상·기도·바라봄. 이 네 가지는 거룩한 독서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자유롭게 일어난다. 그래서 흔히 거룩한 독서를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추는 ‘춤’으로 비유한다. 지금까지 설명한 거룩한 독서의 실천 방법은 함께 신는 그림(11면)에 더욱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다.

<영락수련원>은 설립부터 ‘말씀·묵상·기도·수련’, 즉 거룩한 독서를 가르치고 안내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영락수련원에서는 정기수련과 부서 요청에 따라 개최되는 위탁 수련을 통해 거룩한 독서를 안내하고 실천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수련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는 개개인이 자기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독서를 실천할 수 있도록 거룩한 독서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 영락수련원 채널을 통해 나누기도 했다. 거룩한 독서는 전혀 어렵지 않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귀를 누리하고자 하는 열망만 있다면,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도우실 것이다. **만남**



찬양, 하나님 향한 기쁨과 감사의 노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나라 (이사야 43:21)

이 말씀은 우리의 지상 목적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다. ‘찬양’은 사전적으로 ‘아름답고 훌륭한 것을 크게 기리고 드러내는 것’이라는 뜻이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며 보여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요즘에는 찬양의 의미가 음악을 통해 이루어지는 행위들로 축소되고 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이런 음악적인 찬양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교회 문화에서 음악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찬양 음악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을까? 찬양의 의미에 관해서는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고, 음악에 관해 설명하자면 음악은 ‘소리를 통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음악은 단순한 무작위의 소리가 아니라, 특정한 규칙을 따르는 멜로디, 리듬, 화성 등이 조합된 소리, 즉 음악적 소리를 말한다. 그렇다면

교회에서의 찬양이란 음악적인 소리로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여 하나님만을 높이며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교회음악은 그 본질이 모호해지며 대중음악(종교 색채의 대중음악)과 예배음악이 잘못 섞이고 있다.

통상적으로 교회음악이란 ‘경배·간구·고백·감사’라는 네 가지 속성을 가질 때 그것이 교회음악이라 할 수 있고, 그 음악이 오직 하나님만을 노래할 때 비로소 예배에 적합한 음악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일반적인 교회 문화에서 사용되는 많은 곡도 분명히 교회의 노래이지만, 예배음악과는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음악은 사람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장세완 장로
동대문·중랑교구
호산나찬양대 지휘

사람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아주 큰 영향력이 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음악은 아주 심오한 연구와 신중한 사용이 지극히 필요하다. 찬양 음악을 통해 이루어진 많은 효용과 결과들은 성경의 여러 곳, 특히 다윗의 이야기나 시편 등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그럼 ‘듣는 것과 부르는 것이 동일한 찬양’을 어떻게 해야 할까? 물론, 다양한 주관적인 방법이 있겠지만, 올바른 교회음악과 예배음악을 회복하기 위한 방향을 제안하려 한다.

찬양은 ‘감동·감화·감사의 기쁨으로 완성

첫째로, 예배 찬양과 일반 집회의 찬양은 구별되어야 한다. 예배 찬양은 오직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는 곡조가 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영적 제사이기 때문이다. 많은 곳(사실 나 자신도 그런 적이 있다)에서 일반적인 복음성가나 대중적인 부흥가가 예배 찬양으로 올려질 때가

있다. 이는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부끄러운 일임을 깨달아야 한다. 특히 급진적인 대중음악에 크게 영향 받는 성장기의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는 이런 차이를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대중문화적 상황이 교회 문화의 본질을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올바른 예배음악은 내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음악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충분하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악이어야 한다. 그리고 예배의 목적에 부합하며, 최고의 아름다움과 탁월함을 지녀야 한다.

둘째로, 교회음악에 대한 지속적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는 지금, 세대 간의 문화적 차이와 사회의 빠른 변화, 그리고 물질문명의 새로운 변화 속에 살고 있다. 이는 음악에서도 다를 바 없다. 과도하게 자극적인 전자 악기나 적합하지 않은 악기 사용 또는 검증되지 않은 대중음악의 무분별한 사용 등으로 교회음악의 정체성이 흐려지고 음악사용의 본래 취지가 왜



곡되는 상황을 볼 수 있다.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교회 고유의 음악적 요소들(이미 검증된 찬송가 등)을 일상적으로 지속해서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통적인 정서(경건, 복음 등)를 담은 교육을 통해 교회의 본질을 다음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기성세대에게는 ‘젊은 세대의 감성을 담은 음악’을, 젊은 세대에게는 ‘기성세대의 음악’을 교육하여,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음악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단순히 새로운 음악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혼란을 초래하고, 교회 구성원의 세대 간 문화적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

셋째로, 선한 찬양이 되어야 한다. 선한 찬양은 목적과 결과가 일치하는 찬양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찬양은 준비과정이 아름답고, 바쳐지는 순간이 아름다우며, 결과가 아름다운 찬양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선한 찬양의 의미를 잊어버릴 때가 있다. 듣기 좋은 찬양이나 상대적 우월을 위한 찬양, 준비과정에 상처와 인간적인 갈등이 스며든 찬양과 같이 옳지 못한 찬양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리는 최선의 노력으로 진심어린 찬양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선한 찬양의 기본 원칙을 충실히 살려야 한다.

넷째로, 감동이 있는 찬양이 되어야 한다. 음악은 감동을 담은 자기표현과 표현 대상에게 완전한 감동을 전달함으로써 완성된다. 찬양도 마찬가지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진솔한 감동으로 찬양해야 비로소 완성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감동함을 보시고 우리를 감화시키실 때 그 찬양은 능력과 위로, 기쁨을 가지게 된다. 세속적 음악은 아름다움과 쾌락을 추구하지만, 찬양은 주님이 주시는 은

혜의 기쁨을 목적으로 한다는 극명한 차이점이 있다. 그러므로 찬양하는 기쁨은 모든 세상의 어려움과 괴로움을 이기며,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원동력이 된다.

결론적으로, 찬양은 감동과 감화, 그리고 감사의 기쁨으로 완성되어야 한다. 찬양은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이루어야 하며, 철저한 자기 고백과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화(우리를 변화시키심)를 기대해야 한다. 모든 찬양은 결과를 받으시는 분께 대한 기쁨과 감사로 마무리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찬양의 기쁨을 맛보고 그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찬양을 통한 삶의 승리와 다양한 찬양의 방법 및 효능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다. 확실한 것은 찬양에는 힘이 있다는 점이다. 지난 30년간 찬양대를 지휘하며 체험했던 순간들을 회상하면, 자신의 미흡함과 염려 속에 찬양했지만 들어 응답해주셨을 때의 크나큰 기쁨의 순간 반면에 인간적 자량으로 찬양했지만 냉랭하신 하나님의 채찍의 순간이 기억난다. 찬양은 깊은 감동을 위해 애쓰고 기도하며 올려질 때, 정말 깊은 하나님의 감화가 있음을 확신한다. 이 감화를 통해 나 자신의 변화를 체험하면서 오직 기쁨의 감사가 우러나는 것이 찬양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50:6)

감동과 감화, 그리고 기쁨의 감사가 성취되는 찬양으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만남**



영락기도원 특별금요산상기도회

- 7월 7, 14, 21일...본당에서도 온라인으로 생중계 예매

해마다 여름이면 북한산 기슭 수유리 영락기도원에서 열리는 산상기도회에 참석하시던 기억이 선명하실 것입니다. 올해 4월 우리 교회 본당에서 1, 2차 산상기도회가 있었지만, 그래도 기도원 산상기도회를 갈망하시는 성도님들께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7월 한달 간 금요기도회가 영락기도원에서 ‘특별금요산상기도회’로 열립니다. “말씀따라 행진하라”를 주제로 열리는 특별금요산상기도회에 대해 김운성 위임목사님은 “3주 동안 영락기도원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기도, 찬양, 말씀 묵상을 위한 소중한 시간을 가져 신앙 생활에 대한 새로운 각오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자 한다”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시간이 되기”를 권면 하였습니다.

7월 7일, 14일, 21일 오후 7시에 열리는 2023년 특별금요산상기도회는 회차 별로 참여 교구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강사 목사로는 1차 부산 성민교회 홍유희 목사, 2차 진주교회 김기덕 목사, 3차 부산 소정교회 이근형 목사를 초청했습니다. 강사 목사님들이 신앙 생활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준비한 다양한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 강건케 하고 성장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만남**

1차 | 7월 7일 19시

설교

홍유희 목사
(성민교회)



해당교구

1(강남) 4(중구·용산) 7(서대문·은평) 10(중로·성북) 13(서초) 16(고양·파주)

2차 | 7월 14일 19시

설교

김기덕 목사
(진주교회)



해당교구

2(강동·송파) 5(관악·동작·금천) 8(동대문·중랑) 11(노원) 14(인천) 18(용인·화성)

3차 | 7월 21일 19시

설교

이근형 목사
(소정교회)



해당교구

3(성동·광진) 6(강서·구로·양천) 9(마포·영등포) 12(강북·도봉) 15(성남·분당) 17(안양·수원)

특별금요산상기도회 기도제목

1. 세계를 위한 기도

- ①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열방이 주님만을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소서.
- ② 세계 각지의 선교사님들의 신원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충만하여 복음의 씨앗이 온전히 심겨지며, 그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풍성히 맺게 하여 주소서.

2.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 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이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정직하고 바른 위정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소서.
- ② 어둠의 권세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외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 ③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성들을 다스리 일으켜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겸손한 섬김을 허락해 주시어, 주님의 통치하심을 따르게 하소서.
- ④ 불안정한 북한정세로 한반도가 위협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핵문제, 식량문제, 인권문제 등으로 신음하며 고통 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복음으로 남과 북이 통일되게 하여 주소서.

3. 한국 교회와 영락교회를 위한 기도

- ① 교회를 섬기는 교역자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과 사랑으로 하나되어 기쁨 가운데 말씀으로 행진하게 하소서.
- ② 창립 8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영락교회가 세상을 살리며, 영혼을 살리는 새로운 선교적 지평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 ③ 영락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김운성 위임목사님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모든 교역자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 ④ 2023년 영락 오이코스를 통해 영락의 모든 성도가 말씀으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 ⑤ 영락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소서.

4. 개인과 가정을 위한 기도

- ① 삶의 여러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질병, 진로, 관계의 문제, 경제, 직업 등)에게 응답하소서.
- ② 영락 오이코스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더욱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더욱 긍휼히 여기고, 이해하며, 용납하며, 아끼게 하소서.
- ③ 모든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현실의 문제를 돌파하여 주님의 크신 보혈 안에 하나가 되게 하소서.

흰구름 몽게몽게...여름성경학교 개학

2023년 교육부의 여름은 7월 1일 베드로부와 영아부 프로그램으로 시작합니다. 방학동안 성경과 선교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활동, 예배, 찬양, 놀이 등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준비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심을 가지게 되며, 친구를 사귄 수 있고, 기독교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많은 가정에서 참여하여 하나님의 축복에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육부 여름성경학교 주제

- 사 랑 부** “위풍당당, 용사기드온” (사사기 6:14~16)
- 영·유아·유치부** “하나님께 예! 예! 예!” (시편 150:5)
하나님께 **예배**해요! 기뻐하며 **예배**해요! 함께 **예배**해요!
- 유·초·소년부** “나는 믿음의 사람!” (히브리서 11:1)
- C e b C** “Shine Jesus Light” (마태복음 5:16)
- 중 등 부** “Rejoice” (시편 4:7)
- 고 등 부** 환승연애 “세상을 사랑하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했다” (고린도전서 9:25)
- 베 드 로 부** “Project Rejoice” (빌립보서 4:4)
- 대 학 부** “열음(여:름)” (마태복음 7:20)

교육부 여름성경학교 일정표

	토	일	월	화	수	목	금
07	1	2	3	4	5	6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드로부(영락기도원 : 7월 1일~2일) • 영아부(영락교회 : 7월 1일~2일) 						
	8	9	10	11	12	13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부(영락교회 : 7월 8일~9일) 						
	15	16	17	18	19	20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부(영락교회 : 7월 15일~1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년부(영락교회 : 7월 21일~23일) • 초등부(강화성산청소년수련원 : 7월 21일~23일) 				
22	23	24	25	26	27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부(신덕교회 : 7월 25일~2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년부(영락기도원 : 7월 28일~30일) • 사랑부(코바코 남한강수련원 : 7월 28일~30일) • 중등부(무봉산 청소년 수련원 : 7월 28일~30일) • 고등부(크라온 해태 연수원 : 7월 28일~30일) 		
08	29	30	31	1	2	3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ebC(영락기도원 : 8월 4일~5일) • 중등부(이스라엘, 요르단 : 8월 4일~12일) • 고등부(몽골 울란바토르 : 8월 4일~9일)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부(딱따구리수련원) : 8월 17일~19일 						
19	20	21	22	23	24	25	

자료제공 교육부



‘은혜의 도미노’를 세워가는 중등부



국내비전트립 통해 하나님 주신 ‘도미노의 힘’ 체험

도미노는 아이들 놀이에서 빠질 수 없는 것 중 하나입니다. 하나의 도미노가 넘어질 때 그보다 1.5배 크고 무거운 다음 도미노를 넘어뜨릴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미노를 연속해서 세워놓고 차례대로 넘어뜨리면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 이를 ‘도미노 효과’라고 합니다. 이를 실제 시연하는 영상을 보면, 핀셋으로 들어야 할 만큼 작은 5mm 크기로 시작한 도미노가 1.5배씩 커져서 결국 13번째에는 1m 크기의 45kg 이 넘는 큰 도미노를 넘어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속해서 확대해보면, 51번째 도미노는 무려 에베레스트산만큼 큰 것을 넘어뜨릴 수 있다는 가정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작은 일이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도미노 효과’는 우리 삶에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저는 삶 속에서도 이런 ‘도미노 효과’를 느꼈습니다. 작년엔 중등부 학생들과 국내 비전트립을 다녀왔는데, 하나님 은혜의 도미노 시작은 비전트립을 준비하는 모임에서부터였어요. 중등부 선생님들과 마음을 모아 40일 전부터 함께 릴레이 금식 기도하며 여름 수련회와 비전트립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주셔서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여수-고흥-중도 등 멀리 떨어진 장소들을 방문하는 버스 안에서는 학생들의 찬양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수 애양원, 문준경 전도사의 순교 기념관 등을 방문하면서,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때의 다양한 경험이 마치 도미노처럼 연결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캠프파이어를 하며, 뜨겁게 찬양과 기도를 했고, 평소에 부모님이 자녀에게 하지 못했던 마음의 말을 편지에 담아 전했습니다. 이 편지 도미노를 통해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학생들은 더욱 열심히 부모님과 가족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비전트립의 여러 중요한 순간이 연결되어 점점 더 큰 도미노를 세웠고, 그 과정을 돌아보니, 저에게도 너무나 소중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청소년기는 자신을 찾아가는 중요한 시기인데, 학생들이 저보다 어리지만, 저보다 더 성숙하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함께 비전트립을 다녀온 한 학생이 저에게 다가와 비전트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고백했을 때, 그들이 도미노를 세우고 완성해 가는 모습을 본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여정에서도 하나님 만나길 소망

올해 여름, 중등부는 “예수님을 따라 걷다”라는 주제를 품고 이스라엘로 떠나,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선교활동을 훈련할 계획입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땅이니까요. 이제 중등부 학생들은 그 땅을 직접 밟으며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따라 걸으려 합니다. 이번 이스라엘 여행이 학생들에게는 아주 작은 도미노를 핀셋으로 집을 것처럼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소중한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이스라엘로 비전트립을 떠나는 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 은혜의 도미노를 세워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만남**



강하림 전도사
중등부

내 맘 와닿은 노랫말 찬양이 좋아졌어요

- 중등부 제자훈련 YDS



중등부에서는 매년 'YDS제자훈련'을 진행하는데, 올해는 4~5월 두 달간 "WHY NOT?"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3학년이라 중등부에서의 마지막 제자훈련이었어요. 캠프를 포함한 총 8주간의 훈련 동안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 작가님, 싱어송라이터분들의 강의를 들었는데, 모든 강의가 정말 좋았어요. 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조별로 진행되는 훈련과 너무나도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어서 더 열심히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김복유 찬양사역자님의 찬양 콘서트는 가장 은혜로운 순간이었어요. 예전에 음원 차트에서 찬양을 찾아보다가 우연히 김복유 찬양사역자님의 '잇쉬가 잇샤에게'라는 찬양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라이브로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 제자훈련을 통해 실제로 들을 수 있어서 너무나도 은혜로웠어요. 김복유 찬양인도자님이 그날 부른 '아담은 말하곤 하지'라는 찬양의 가사가 마음에 와닿아서 그 이후로 찬양을 더욱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YDS 제자훈련은 처음 참여했는데, 특별히 파주 헤이리 마을에서 진행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캠프 일정 중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예배였고, 박물관 견학과 활동도 좋았습니다. 박물관 큐레이터가 들려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라는 소개로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고 싶었고,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7주간 저희를 섬기셨던 선생님들께서 섬기는 마음으로 (세족식)을 진행해주셨습니다. 저희 발을 씻어주시며 무릎을 꿇고 기도해주시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은혜로웠고, 발을 씻겨주신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 감사했습니다. 저도 나중에 중등부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세족식으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중등부에서 진행하는 YDS 제자훈련이 앞으로도 잘 이어져갔으면 좋겠어요. 이번 제자훈련은 정말 좋아서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고등학생이 되어도 꼭 제자훈련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자훈련이 끝나더라도 제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남**



김미주
중등부 3학년

영락 고등부 몽골을 간다



4월부터 시작한 고등부 제자훈련을 통해 예수님의 명령을 배웠습니다. 그중에서 마지막 명령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라’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해외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몽골을 마음에 품게 되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몽골도 사랑하신다고 확신하고 그곳으로 사랑을 전하려 갑니다.

거룩한 부담감으로

4년 만에 다시 찾아온 비전트립이라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토요일마다 함께 모여 기도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몽골을 위해 영락 고등부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어 고민했죠. 몽골에 오랫동안 계신 선교사님을 통해, 몽골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예배와 제자훈련을 통해 배운 내용을 실제로 함께 실천할 때입니다.

몽골 교회학교를 열다

현재 몽골에서는 대략 1% 정도의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고 있으며, 청소년의 비율은 이보다 훨씬 낮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영락 고등부는 몽골 교회학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언극, 몽골 찬양, 그리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위십을 통해 복음을 전하려

고 합니다. 또, 전 성도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와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함께 교제하며 사랑을 전하려고 합니다.

기도로 동참해 주세요

몽골 봉사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만든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세요.

- 1 몽골 비전트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여 충만한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2 팀원 모두 하나 되게 하시고, 몽골에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3 모든 일정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은혜롭고 안전한 비전트립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 4 영락 고등부가 믿음을 통해 성장하고, 새로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만남**



김태용 전도사
고등부

예수님 마음 닮은 '섬김의 자리'



올해 5월도 어린이 주일, 전 세대 예배, 교육 주일 등 다양한 행사로 교육부 교역자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회 곳곳에서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어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5월이 다 가기 전에 저희 교역자들은 매우 특별한 섬김을 받았습니다. 그날의 감동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5월 25일, 맑고 푸른 날에 교육부서 교역자들이 재학 중인 서울 광진구 광장동 장로회신학대학교에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교육부 담당 목사님들, 임원들, 학교를 졸업한 전도사들까지 교역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학교를 찾아 주신 것입니다. 이날 학교 방문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교육부 임원들이 교역자를 위해 '잔치'를 열어주셨거든요. 장소는 학교 내 바비큐장. '레드카펫'이 입구에서 바비큐장까지 죽 깔려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날의 주인공으로 특별함을 느낄 수 있도록, 애정을 담아 깔아주셨어요.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께서 요리사 모자를 쓰고 직접 고기를 구워주셨습니다. 소고기만 구워 먹는 바비큐 파티는 처음 경험했습니다. 고기와 함께 채소, 음료, 과일, 디저트도 최고로 잘 준비해주셨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엉덩이를 땀 새 없이 직접 가져다주시고 세심하게 챙겨주셨습니다. 교육부 임원들의 섬김으로 푸르른 아차산 나무 아래에서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칠 때쯤, 교육부 차장 집사님께서 경품추첨을 진행하셨습니다. 이름이 적힌 쪽지가 뽑히는 순간!

5월 교육부 교역자 위한 위로 행사

“오늘은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레드카펫 밟으며 야외 파티장 들어서니

셰프 모자 장로님과 집사님이 고기 구워주며 격려

와! 소리지르며 서로의 당침을 기뻐했습니다. 부장 장로님께서는 “교육부 행사를 준비하는 교역자들의 섬기는 모습을 눈여겨보았고, 교역자들을 위한 시간을 마련해주고 싶었다”라고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섬김의 자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때로는 익숙함에 머무르고만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섬김을 받으며, 누군가의 헤아림이 큰 행복과 위로가 될 수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격려를 통해 다시 한번 힘차게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기쁨이 솟아올랐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언제나 영락의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시고 섬기시는 교육부 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희망을 심어, 훗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교육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만남**



이빛나 전도사
유년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했습니다”

전도해야 신앙 성장

2단계 전도 교육을 받으면서 복음 전문을 외웠는데, 마지막 <즉석 양육 부분>에서 신앙 성숙의 5가지 방안 중 마지막 전도 부분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도하셔야 우리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합니다.”라는 구절이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전도 대상에 대해 생각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 훈련생이 데리고 오는 전도 대상자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준비하는 시간, 그룹 내에서 함께 기도를 요청하는 많은 대상자를 위해 기도했던 시간 등은 전도 교육을 듣기 전에는 몰랐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전의 기도 대부분은 결국 저를 위한 것이었고, 항상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로봇처럼 기도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도 교육을 받으면서 한 명 한 명 생각하며 전도 대상을 위해 기도하게 되면서, 제가 의지할 것은 저의 능력이나 노력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동행하는 느낌을 받아 감사하고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전에는 일상생활이 반복되고 지루했던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만나러 가는 시간이 정말 설레고, 기쁘고, 감사한 시간으로 잠시나마 바뀌었습니다.

전도 교육을 통해 복음 전하는 삶을 지속하기 위해 세상 속에서 더욱 노력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교만하지 않고 더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과 의지를 갖추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태권 성도
청년부 꿈꾸는땅

소중한 사람과 평안을 누리도록...

‘왜 전도를 해야 하지?’, ‘강요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좋은 하나님을 함께 알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씩 하나님에 관해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항상 저의 간증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평안한 저를 자랑할 뿐 아니라 마음도 나누고 싶어서 ‘전도’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배 광고 시간에 전도폭발훈련 영상을 보았고, ‘나중’이라는 핑계를 대다 가는 영영 못 할 것 같아 아주 잠시 고민한 뒤 곧 신청하였습니다.

복음 제시 책자를 모두 외워야 하는 교육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의 핵심 내용을 읽고 외울 때마다 너무 감사해서 이것을 들으면 누구든 감동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에 느꼈던 답답함은 해결되고, 강력한 무기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이 강력한 무기인 복음을 가지고 실제로 전도를 할 생각에 기대감과 긴장감이 들었습니다.



정애솔 성도
청년부 꿈꾸는땅

전도대상 1번 남동생 마음 조금 연 듯

남동생을 첫 번째 전도 대상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긴장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복음 제시를 시작하였습니다. 아직 내용을 다 외우지 못했지만, 저를 지원해 주시는 든든한 훈련자님이 함께 해주시고, 많은 기도로 준비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남동생은 “하나님”, “구원”, “천국”에 대해 많이 질문했고, 저희는 오해없이 대답해주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생각보다 오랜 시간을 보냈고, 남동생은 복음이 아직은 자신의 이야기로 와 닿지는 않지만,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질문에 대답할 때, 저희는 서로에게 지혜 주시고 마음을 열어 주시기를 계속 기도했습니다. 마치고 나니 전우애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용산역에서 노방전도를 시작할 때에는 정말 떨렸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역에서 노숙하는 어르신들을 만났는데 복음을 잘 들어주셨고, 놀랍게도 본인의 어려움보다 청년들의 사회적 어려움을 기도제목으로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배드릴 수 있는 시길... 최근에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무척 조심스러웠는데, 감사하게도 친구는 마음을 열고 복음 제시를 들었으며, 제가 교회에 가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그리고 본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한 요한복음도 꼭 읽겠다고 하여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친구가 하나님을 영접하여 함께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 생겼어요

작년 초, 훈련 중인 아버지를 통해 전도폭발훈련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큰 도전이자 은혜였습니다. 그러던 중, 저도 이 전도폭발훈련에 참여하면 어떨까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험생 기간 중인 상황을 이유로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저에게 합격의 은혜를 허락 해주시면 전도폭발훈련을 받아 영광을 올려드리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주님께서 합격의 은혜를 허락해주셔서 주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전도폭발훈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전도폭발훈련에 참여하자마자 여러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충북 진천에서 장기간 연수원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수료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 이었고,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저에게 복음 제시가 생각보다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부족한 제 삶을 돌아보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릇인지 고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주님의 방법대로 제가 전도폭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주셨습니다. 연수원 일정 중 주말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해주셔서 전도폭발훈련에 참석할 수 있었고, 같은 그룹 사람들의 간증과 고백을 들으며 복음 전파의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복음을 전했던 나태권 훈련자님을 통해 복음의 사명과 절실함을 더 깊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부담됐던 마음이 자유로움을 얻고 기쁨의 마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정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친한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 친구는 독실한 천주교 신자

였고, 자신의 믿음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자아가 굉장히 강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전도 대상으로 떠올리게 하시고 복음 제시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때 제가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그 친구가 정말로 믿게 될까요? 그 친구는 이미 열심히 성당 다니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그 친구를 버리고 혼자 천국에 가려고 하는 거니? 나를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저는 친구에게 복음 제시를 제안했고, 그 친구는 흔쾌히 승낙하여 복음을 끝까지 듣고 믿음을 통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며 결심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전도폭발훈련을 통해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방법만 배울 줄 알았는데, 그보다 더 소중하게도 저 자신도 복음에 대한 확신을 더 굳게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체계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거절당하더라도 낙심하지 않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복음 증거를 주님께서 가장 크게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를 큰 구원의 역사에 사용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남**



이효빈 성도
청년부 꿈꾸는땅



누가 복음 외치는 청년들 “우리가 진정한 이웃입니다”

2023 영락청년 선교비전

5월 26일(금)~28일(주일) 사흘간 (2023 영락청년 선교비전)을 진행했습니다. 이틀 동안 50주년기념관과 배다니광장에서 음료, 간식, 커피 캡슐을 판매한 이익금을 청년부에서 파송한 7개국 11명의 선교사에게 전달하고, 8월 청년부 하기선교에서 사용할 선교 후원금을 모았습니다. 주일에는 큰 전지에 선교사들의 사역 사진과 기도 제목을 공유하며 성도들이 응원 편지도 작성하는 등 은혜롭게 청년들의 뜨거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비전을 준비하는 과정은 다른 모든 사역과 마찬가지로 노력과 땀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회장단은 주중에도 모여 기획과 준비에 대해 의논하며 은혜로운 선교비전을 어떻게 공유할지 고민했습니다. 전적으로 기도로 의지

하며 진행하게 하신 하나님은 때를 따라 지혜와 인력을 모두 예비해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선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은혜의 창구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선교비전 주일 찬양예배는 대전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를 초청하여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의 제목으로 자비를 베푸 사마리아 사람(누가복음 10:30~37)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를 만난 사람을 피해 갔지만, 사마리아인은 그를 돌보고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누가(Who) 우리의 이웃인가, 누가(Who) 이웃의 우리인가’라는 선교비전의 주제를 생각하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신 주님의 질문(누가복음 10:36)에 ‘자비’를 베푸 자가 진정한 이웃이 됨(누가복음



이르되 자비를 베푸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37)



10:37)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우리가 받는 것이고, 자비는 받아야 할 것이지만 우리가 받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받아, 죄악으로 인한 영원한 형벌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यो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6) 하신 것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 행진하며 나아가갈 때 사랑할 수 없는 이웃도 품고 기도하며 사랑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누가복음을 외치는 청년들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남**

청년부 78대 회장단

축구로 예수님 사랑 전합니다

- 청년부 소모임 / 영락블루FC(Youngnak Blue FC)

“와!!! 이 페널티킥을 막아내다니!!!” 청년부 오병훈 목사님이 찬 페널티킥을 전원범 형제가 막아내면서 경기장 내의 선수와 관중은 한바탕 술렁였다. 페널티킥을 막은 형제가 누구인가 궁금해하는 성도들부터 승부의 세계는 냉정하다는 의견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5월 20일 대광고, 전 교인이 참석한 영락가족운동회에서 청년부 <영락블루FC>와 3040 연합팀(청년선교회+부부선교회)의 축구 경기가 펼쳐졌다. 경기를 준비하며 상대 팀에 낯선 사람들도 있었고, 승리욕이 앞서 상대 방을 다치게 하진 않을까 내심 걱정도 앞섰다. 경기 시작 전, “하나님. 이 시간 경기에 임하는 우리에게 승부의 중요성보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허락해주세요. 함께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 되는 시간이 되길 기도했다. 경기를 무사히 마치고 선수와 응원단 모두 친근해진 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서로에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친교의 시간이 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격려하고 배려하는 마음 배워

<영락블루FC>는 영락교회 청년부 축구동아리이다. 영락블루FC의 뜻은 청년의 靑(푸를 청=BLUE)으로써 현재 푸르고 빛나는 청년 시기를 함께 즐겁게 보내자는 의미이다. 우리 팀의 비전은 소모임 내의 청년들 간의 교제를 통해 청년부 지체 간에 사랑을 나누고, 불신자와의 교제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봉사활동을 통해 미래 세대에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성장의 씨앗을 전하는 것이다. 이 글을 쓰는 6월 초에는 현재 25명의 청년이 함께 활동하며 매주 모이기를 힘쓰고 있다. 주로 토요일 오후에 모여서 자체 미니게임과 상대 교류전을 진행하고 있다. 6월에도 광림교회, 새벽교회 등과 교류전을 준비하며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를 점차 늘려가고 있다. 이 모임은 코로나 이후 청년들 간의 교제를 확장하기 위해 시작했으며, 매주 토요일 정기모임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간증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등 좋은 결과도 가져왔다. 하나님 앞에서 서로 격려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배우며,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되었다. 이로써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로 변화하고 있다. 경기는 이기기도, 지기



김승태 성도
청년부 주는나무
영락블루FC 부팀장

매주 토요일 정기모임을 갖는 영락블루FC
오른쪽 첫번째 윗줄이 필자.
아랫줄이 서동현 팀장



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경기력이 아닌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얻는 따뜻한 사랑 그 자체이다.

축구는 팀플레이...자신의 달란트로 헌신

축구는 11명이 뛰는 단체 스포츠로, 함께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팀플레이를 맞추어야 한다. 주목받지 못하는 위치에 있는 선수라 할지라도 자신의 임무를 열심히 수행하면 팀에 녹아들며 주변 선수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삶과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교회 내 공동체부터 직장, 학교, 가정 등 다양한 곳에서 각자가 가진 임무를 수행하며, 보이지 않는 헌신을 하여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이다. <영락블루FC>에 모인 선수들은 청년부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하고 있다. 경기장, 교회, 일터 등 모든 곳에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삶을 보며, 나 역시 우리

팀원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 선순환하는 선한 영향력을 통해 각자의 삶에 간증이 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 굳게 믿는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분명히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해 부족한 우리를 성장시키고 사랑을 주고받는 방법을 가르쳐주신다. 이러한 선순환을 만들어주시는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다시금 고백한다. 그리고 <영락블루FC>와 함께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청년 시기에 몸과 마음이 성장하도록 적극 달려갈 것이다. **만남**

영락블루FC 공식 인스타 계정 : @youngnak_blue_fc
팀장 서동현, 부팀장 김승태

한미동맹 70주년, 평화·번영의 굳건한 토대



1954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조인서 서명

올해 6·25전쟁 정전협정체결과 한미동맹 결성 70주년을 맞는다.

6·25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형언할 수 없는 비극이었으며, 진실로 참담한 일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비참한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부흥하여 오늘날 G-7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선진국으로 발전했다. 정전협정은 정치적인 회담을 통해 법적으로 전쟁을 완전히 종결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단하는 협상이다. 지난 70년간 정전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군사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한 것이 한미동맹이다.

북 침략 위협 막고 선진국 오르게 한 동력

1950년 10월 중공군이 전쟁에 개입하면서 전쟁은 1951년 초부터 양측이 후퇴와 반격을 반복하는 상황이 되었다. 1951년 6월, 소련의 UN 대표 야코프 말리(Jacob Malik)가 휴전 협의를 제안했고 UN군 측은 한반도에서 적대행위와 무력 행사 중단을 보장할 수 있는 휴전회담 제의를 받아들였다. 리지웨이 UN 사령관은 회담 수석대표로 조이(C. Turner Joy) 미 해군 제독, 그밖에 미국군 장군 3명과 한국군 장군 1명을 UN 측 대표로 지명하고, 회담 장소로 원산만에 정박 중인 덴마크 병원선을 제안했다. 공산 측은 회담에 동의하지만, 회담 장소는 개성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규 은퇴장로
서초교구
전 한국예비역 기독교인
연합회 회장

1951년 7월 19일 제1차 본 회의에서 휴전선 설정, 전쟁 포로 송환 문제 등이 논의되었다. UN 측은 회담 지역의 중립성을 내세워 전선 중앙에 있는 판문점으로 회담 장소를 바꿀 것을 제안했고, 10월 25일부터 판문점에서 정전 회의가 개최되었다. 전선에서는 소규모 전투가 계속되어 사상자가 늘어나고 있었다. 미국은 반전 여론이 고조되어 휴전을 희망하고 있었으나 우리나라는 통일이 없는 휴전은 사실상 '사형선고'라며 민족 국가로서 생존하기 위해 단독으로라도 싸워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정전 제안에 동의하기를 여러 번 거절하여 연합국으로부터 신망을 잃었다. 1953년 3월 5일 소련 스탈린의 사망으로 정전회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고, 1953년 5월 30일 이 대통령은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한미방어 조약' 체결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휴전 협상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정전회담에서 포로교환 합의가 성사된 지 열흘 만인 1953년 6월 18일 2만 7,000명의 반공포로를 단독으로 석방하여 미국을 격분시켰다. 미국은 이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한 작전도 고려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미국이 공산주의 앞에서 너무 나약하다고 비판했고, 미국은 그를 회유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휴전을 서두르는 미국으로부터 최대한의 혜택을 얻고자 했으며, 결국 미국은 ① 한미방위조약체결 약속 ② 대한 원조 1차분 2억 달러 및 1,000만 파운드 식량 지원 ③ 한국 육군 20개 사단 및 해·공군 증강 조치 등등을 약속했고, 7월 25일 미국무장관을 통해 서울에 보장 약속문서가 전달되었다. 이를 후인 7월 27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제158차 본 회의를 통해 18개 항목으로 구성된 휴전협정 문서에 임시로 서명과 날인이 되었다. 12시간 후 총성이 멈추었으며, UN 함정은 북한 해역에서 벗어났고, 공군기는 북한 하늘에서 날지 않았다.

북 핵 맞서 자유·평화동맹으로 강화해야

한미방위조약은 당시 한반도에서 통일 없는 휴전을 강력히 반대한 이승만 대통령과 조기 종전을 원했던 미국 정부의 어려운 외교 협상의 결과로 맺어졌다.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한미방위조약은 1953년 8월 8일 기초 되었고, 10월 1일에 공식 체결되어 한미동맹이 시작되었다. 이 조약은 다음 해 7월 한미정상회담을 거쳐 11월 18일에 정식 발효되어, 지난 70년 동안 북한의 도발과 침략적 야욕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한미방위조약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한국에 대한 군사 및 경제원조' 합의가 1954년 11월 17일 자회의록에 담겼다. 이 합의는 美 정부가 한국 육군 66만 명, 해군 2만 7천 명, 공군 1만 6천 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군사원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69년까지 미국은 매년 3억 달러 규모로 한국에 군사원조를 제공했으며, 그 가치는 당시 한국이 사용한 국방비의 87%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미동맹의 상징이 되었으며, 미군의 한국 주둔은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임무를 수행해 왔다. 1978년 11월 7일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설립되어 한미 군사력을 통합 운용할 수 있는 연합방위체제가 구축되어 한미동맹이 제도적으로 더욱 공고화되었다.

한미동맹은 6·25전쟁 같은 비극을 막고 우리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한미양국의 강력한 의지와 결집이다. 앞으로도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되어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확장력을 강화하고,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정의로운 동맹이 되길 소망한다. **한남**

복음통일 또 다른 우리의 소명

하나님의 단비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항상 우리에게 내려집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정말 좋아합니다.

북한 선교와는 큰 연관이 없었던 저를 하나님이 갑자기 부르셨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복음통일학교 팀장의 자리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중요한 자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 코로나19와 어려워진 경제를 극복해야 할 상황이어서 교회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교회가 제 몸에 붙어있게 하시려는 것처럼 수요예배, 금요기도회를 시작으로, 토요일과 주일까지 쉴 틈 없이 교회 활동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수시로 가야 했던 50주년기념관 806호(북한선교부)는 마치 제 사무실이 된 듯했습니다.

복음통일학교는 시작부터 상당히 부산했습니다. 2주 전에야 개강을 확정했기에 광고하고 홍보할 시간

은 1주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걱정과 불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1주일 동안 필요한 모든 인원을 채워주시고 모든 일정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번 복음통일학교의 주제는 ‘북한 교회 세우기’였습니다. 개강식과 4번의 강의 및 교재, 송약기도처 기도회 및 여러 기도회 참석, 그리고 탈북민 교역자가 사역하는 교회 참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참여하신 분들이 만족해하셔서 감사했습니다. 강사님들의 열정적인 강의 덕분에 학생들은 지루해하지 않고 북한에 대해 더 알게 되었고, 왜 우리가 북한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함께 기도해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남북 합심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복음통일학교는 일회성의 단순 사역이 아니라 지속적인 참여 및 연계 활동으로 인해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사역이었습니다. “복음통일학교는 나에게 주시는 또 다른 소명인가?”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출장이 생기거나, 준비했던 사역이 원할히 진행되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은혜의 단비는 소나기처럼 쏟아졌습니다. 저의 참여 여부에 상관없이, 계속된 강의와 기도회를 통해 모두가 감동하고, 가슴으로 느끼는 감



너희가 합심하여 기도하라.
복음통일은 내가 이루리라.

정들이 기도를 통해 속속 드러나며, 모두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울며 기도하지만, 북한의 성도들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태껏 가볍게 기도했던 우리는 복음학교를 통해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공감하게 하시고, 우리뿐 아니라 저들을 위해 애통하며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욱 공활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합심하여 기도하라. 복음통일은 내가 이루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통일을 위한 우리의 소명은 ‘기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저 일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복음통일을 위해 생명을 걸고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 북녘 땅 북한 동포의 생명을 위해, 자유로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또한 속히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북녘 동포 위해 애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복음통일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세계 강대국이 연합해도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 이루어질 것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함께 기도하라 명령하시고, 이를 통해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북한에서 온 사람들의 목숨 건 기도와 남한 사람들의 애통해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바라

시는 복음통일이 성취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 하나되어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기다린다고 믿습니다.

영락교회는 북한에서 온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품으며 북한선교와 복음통일의 선두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락교회의 모든 성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합심하여 선을 이루고, 복음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합시다.” 우리의 소명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단비가 모든 성도에게 삶의 꿈과 비전을 세우고, 은혜와 축복의 삶이 허락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남**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 17년째 계속되는 금요 복음통일기도회

매주 금요일 100여 명이 모여 기도하는 <복음통일기도회>는 2006년에 시작해 현재 17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복음통일기도회를 계속 운영해 온 것은, 복음으로 통일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복음통일학교>는 5월에 개강했고, 탈북민 교역자와 사역자를 통해 직접 현재 상황과 과거의 변화를 듣고 기도하니, 기도가 더욱 눈물겨워졌습니다. 6월 2일 금요일 1남선교회와 함께한 연합기도회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얼마나 큰지 이 글을 통해 고백하려 합니다. 그날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저 허명욱 혼자가 아니라, 김미열, 이순옥, 한희자 은퇴권사 이렇게 4명의 권사가 모여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연합기도회는 찬양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그 후 탈북민 유가영 집사님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평범하면서도 소탈한 간증이었지

만, 그 평범함과 작은 것도 저들에게는 소중한 값진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일들이 저들에게는 목숨과 연결된 중요한 사건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 이요 (마태복음 5:4)

우리는 편안하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지만, 저들은 모든 행위를 위해 목숨을 거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체포되었던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얼핏 듣고 흘릴 수 있는 타인의 삶의 이야기지만, 당사자에게는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짓는 순간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탈북 성도들이 북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죄송하다고... 우리는 너무 안일함으로 기도한 것 같아서.

그리고 김재열 선교사님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한국인이지만 캐나다 이민 후, 북한을 넘나들며 <북한 인민병원(나진 선봉지구)>에서 치과의사로서 북한 사람들을 돕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부르는 목소리에 매번 달려가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만 했으나, 선교사님은 현장에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습니다. 그의 모든 활동과 말씀이 저희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 6월 2일 1남선교회와 함께한 연합기도회에서 은혜로운 쌍둥이 자매의 찬양
 ▼ 오른쪽부터 필자 허명옥 권사, 이순옥 은퇴권사, 김미열 은퇴권사, 한희자 은퇴권사

우리는 아무 때나 기도하고 성경 읽지만
 북녘에선 이 모든 게 목숨 걸어야 하는 일
 절실하게 기도하는 중보자 다짐하는 계기



것보다 훨씬 심각한 북한의 현실을 위해 더욱 열심히 기도하는 영락교회와 한국의 모든 교회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쌍둥이 자매의 찬양은 정말 힘 있고 능력 있는 찬양이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을 더 많이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쌍둥이 자매의 하모니뿐 아니라, 선교 비전을 함께 품고 서로 보듬으며 만들어가는 협력이 더욱 빛나 보여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회를 이끈 이신애 전도사님의 기도 인도는 우리와 달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와 눈빛은 정말로 간절해 보였고, 마치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를 인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권사들은 70세를

넘어도 여전히 기도하는 자들이지만, 이번 기도회는 일반적인 합심 기도와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우리는 앞으로 영락교회와 한국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나이로는 은퇴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절실히 기도해야 하는 거룩한 중보자 되기로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함, 거룩함, 그리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우리 영락교인들이 북한선교와 북동통일에 관심과 사랑을 더욱 키우기를 소망합니다. **만남**

송악기도처, 통일을 기도로 준비하는 곳

〈송악기도처〉를 방문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준비한다. 오전 9시에 영락교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8시 30분까지 도착하려고 일찍이 길을 나섰다. 아침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진다. 〈복음통일학교〉의 강의도 듣고 기도회에서 힘차게 기도를 한 덕분인지 송악기도처로 가는 길이 매우 설레며 마치 통일을 이루러 가는 것 같다. 오늘 날씨도, 기분도, 자동차도, 사람들도, 모두 은혜롭다. 정말로 은혜로운 시간이다.

우리를 태운 차는 최북단 파주로 출발했다. 통일대교 앞에서 검문받고, 신분증을 제출할 때는 분단된 조국이 현실로 다가오며 새삼 가슴이 아파져 왔다. 지금까지 조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많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말 많이 기도하고 싶다.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태어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주님께서 제공해주신 이 기회도 감사하다. 나라를 위해, 북한 주민을 위해, 그리고 복음통일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도 깨달았다.

우리는 송악기도처에 도착하여 개성공단을 바라보며 예배드렸고, 큰소리로 합심기도를 했다. 찬양,

말씀, 기도 그리고 통일을 위한 찬양까지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였다. 해마루촌의 식사는 정말 맛있고 풍성한 자리였다. 식사가 끝난 후, 이철신 원로목사님의 강의를 들었다. 목사님이 이곳에 계신 이유는 기도하면서 준비했다가 통일이 이루어지면 복음을 전하러 달려가려는 마음으로 항상 그곳에 계신다고 하셨다. 우리도 통일이 이루어지면 제일 먼저 그곳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며, 그러기 위해서 지식을 쌓고,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 아버지, 송악기도처에서 사역하시는 이철신 원로목사님을 주님의 은혜로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영락교회가 실향민의 아픔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전쟁의 아픔이 아닌 진정한 평화로운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또,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정착하고 있는 탈북민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사하시고, 혼란스럽지 않은 정체성을 갖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복음통일학교 일정을 주관하는 모든 분께도 감사의 말씀과 건강을 허락하시어, 주님 섬김이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돌아올 때, 한 사람 한 사람 호명하며 신분증을 반환받을 때, 다시 한번 조국의 소중함과 마음껏 자유롭게 믿음 생활하도록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만남**



조경진 집사
서대문·은평교구

사랑과 인내로 기도하라

- 2023년 북한선교대회 스케치



북한선교부(부장 공수일 장로)는 ‘사랑과 인내로 기도하라’의 주제로 북한선교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는 지난달부터 <복음통일학교>를 열어 준비하였고, 6월2일(금) 1남선교회와 연합한 <복음통일 연합기도회>로 시작되었다. 대회기간 동안에는 30일 기도카드를 제작, 배부하며 기도의 행진을 이어갔다.

6월 7, 14, 21일 수요일에는 <북한동포사랑기도회>로 진행, 17일(토)은 <송악기도처 방문>, 18일(주일)에는 <영락포럼> 개최, 23일(금) 금요기도회는 <북한선교 특별금요기도회>로 진행, 21(수)~23(금), 25(주일) 총 5회에 걸쳐 통일부 제공 <김동무는 하늘을 난다> 상영 등. 주요 이벤트를 개최하여 복음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북한선교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25일 주일예배는 북한선교주일로 드려져, 각 예배에서는 복음통일을 위한 공동기도문을 낭독하였고, 4부 예배는 자유인예배부가 봉헌송을, 찬양예배는 정영택 목사(경주제일교회)의 말씀과 북한선교부 특별찬양이 있었다. 한편 베다니광장에서 열린 광장행사로 북한지역별 교회 이야기, 바자회, 공연, 포토존, 자유인작가 전시회, 교육부와 연계한 어린이 통일 기도 공모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성도들이 북한복음화 사역에 귀하게 쓰임 받는 소명을 일깨우는 일정들이었다. 이번 북한선교대회에서 모금된 현금은 북한교회 재건을 위한 기금과 송악기도처의 환경개선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남**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Burundi

해 외 선 교

굶주림에 신음하는 부룬디 난민촌 날마다 하나님 기적을 고백합니다

- 부룬디 선교 8년차 강병화 선교사 부부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성경을 열 때마다 너무 놀라워
물은 변하여 포도주 되고 작은 도시락 오천 명 먹여
위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제자들 발을 씻겨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아마호로! 동아프리카의 작고 아름다운 나라 부룬디에서 사역하고 있는 강병화입니다. 교육전도사 시절 아이들과 함께 이 찬양을 할 때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는 최빈국 부룬디, 그중에서도 난민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삶을 기적으로 채우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6년 3월 1일 가족과 함께 부룬디로 삶의 터전을 옮겼습니다. 좌충우돌하던 초보 선교사에서 8년 차 선교사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저희 사역은 부룬디 부반자도(province) 은 다바-부송고(Ndava-Busongo) 난민정착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양한 문제와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선교지에서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부룬디에 대해 생각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어느 나라를 가장 먼저 찾으실까요? 제 생각으로는 가장 가난하고 가장 핍박받고 가장 어려운 나라를 먼저 찾으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말구유에 오셔서 병든 자와 가난한 자, 세리와 과부와 고아들의 친구로 계시던 분이니까요. 이곳 부룬디라면, 이곳 난민정착촌이라면 다시 오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방문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교를 넘어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의 형제, 자매인 이들은 우리와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과 웃음 속에서 행복해야 할 어린아이들이 힘든 노동과 굶주림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안타까워 우리는 하루 한 끼라도 배불리 먹이겠다 고 마음먹고, 2018년 6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유치원

을 시작했고, 지금은 4, 5, 6세 반에 속하는 총 179명의 아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들도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지난주에는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가 있는 난민 가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던 중,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문을 뜯어 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마주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을 다시금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한끼 제대로 먹이자” 아이들 양육부터 시작

무너진 교실을 다시 지어주거나 부족한 학교 교실을 채워주는 사역도 도(都) 교육청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실을 지어주기 전에 교육감과 교장선생의 약속을 받아 매주 한 시간 동안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매주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방문하는 학교에서는 아이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며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기도도 부탁했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암 투병 중이신데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지요. 약 두 달간의 긴 방학을 보내고 아이들을 다시 만났는데 한 아이가 “선교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어머니 건강은 어떠세요?”라고 물어왔습니다. 그 순간, 부룬디에 사랑을 전하러 왔는데 도리어 제가 사랑받고 있다고 깨달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주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료 클리닉 - 임산부 사역...도움손길 끊이지 않아

저희는 현지인 의료진으로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 허가를 받기까지 약 6년이 걸렸습니다. 2022년 4월 최종 승인을 받고 정식 오픈 예배를 드린 후, 매일 약 1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무료 진료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난민촌 주민들은 200프랑(100원 미만)의 진료비를 내야 한다면 차라리 아픔을 참을 것”이라는 현지 목사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고민한 끝에 무료 진료로 시작해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도움의 손길을 통해 쉬지 않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임산부 사역은 임신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의 임산부를 돕는 사역입니다. 건강한 출산과 수유를 위해 매일 한 끼 음식을 제공하고 초음파검사를 지원하며 말씀과 기도, 위생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선물(비누, 대형수건, 옷 등)을 챙겨 심방을 갑니다. 집이 좁아 문밖에서 예배를 드린 적도 있고, 흙바닥이나 돌에 앉아 예배드리기도 합니다. 예배드린 후 가족사진과 아기 사진을 찍어 즉석에서 선물로 전달합니다. 처음 갖게 된 가족사진과 아기 사진에 대해 신기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를 조심스레 받아안고 축복기도를 합니다. 처음에는 참 힘들었습니다. 알 수 없는 냄새와 축축함이 제 코와 가슴에 그대로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들은 저를 집으로 초대하고 맞이해 주는데, 제가 한걸음 물러나는 것 같아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태어나는 아이들이 더 많아지고 심방 가는 집이 많아짐에 따라 냄새와 축축함은 사라지고, 내 품에 안겨있는 사랑스러운 천사들의 모습이 더욱 빛나게 느껴졌습니다.

장학생 사역과 컴퓨터 클럽, 키룬디 어린이 성경 비디오

교회와 학교에서 추천받은 약 155명의 장학생과 매달 정기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꿈과 희망을 품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학용품과 식료품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기도 없는 곳에서 기적처럼 컴퓨터 클럽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지원을 받아서 3개월 과정 2개 반에 29명을 1차로 선발했습니다. 컴퓨터 기술을 익힌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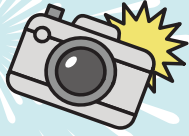
이와 함께, 『Kids Worship』과 동역하여 현지어로 된 어린이 성경 비디오를 제작하여 유튜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비디오는 지난 6월 3일 1,300여 명의 어린이가 참석한 아프리카 ‘어린이의 날’ 행사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홀에 가득한 어린이들이 집중하며 시청하여 우리도 감동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는 약 1,300명으로, 예배를 통해 복음을 선포하고 아이들을 축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외에도 목회자 교육, 교사 교육, 교회 건축 등 다양한 사역도 현지 교단과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사역의 방향을 정해 나아가며, 필요에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사역도 기적과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고 사역을 이어갈 것입니다.

부룬디에서 행복한 선교사 강병화 드림. **만남**



강병화 선교사
부룬디



영락가족사진 페스티벌



**출산 전·후
하은이 교회 출석**
김준범 집사(마포·영등포교구)

위는 출산 전 하은이가족
아래는 엄마 품에 안긴
하은이와 가족



페스티벌을 마치며...

“가족사진페스티벌”은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 대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황을 바꾸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이를 통해 영락의 가족들이 교회에 모여 사진을 찍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대면 예배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김운성 위임목사님의 의견에 따라 목양부가 주관하였고, 홍보출판부, 교육부, IT미디어부, 행정처 등 여러 부서가 협력했습니다.

페스티벌은 기대 이상의 성공을 거두었으며, 하나

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임목사님의 가족을 비롯하여 많은 가정이 영락의 뜰에 모여 가족사진을 찍고 이를 출품하였습니다. 열기가 더해져, 각 부서와 단체에서도 많은 참여가 이루어졌습니다. 원래는 150점을 선별하여 전시하고 시상하려 했지만, 위임목사님의 요청으로 출품작 300점을 모두 전시했고,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외에 특별상, 인기상, 아차상, 섬김상 등을 추가하여 더 많이 시상했습니다.

▶ 47p에 이어집니다



우리 가족
양복희 은퇴권사(강남교구)



우리는 말씀따라 행진하는 가정
최종남 성도(강북·도봉교구)



사랑부 창립25주년 "사랑부 가족을 소개합니다"
사랑부

동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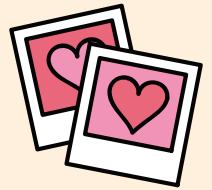
말씀따라 바람따라 천국까지 ㅎㅎ
김은경 성도(용인·화성교구)



마지막 날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찰칵'
박승근 안수집사(서초교구)



아내와 올딸
올아들가정
계훈찬 은퇴안수집사
(용인·화성교구)



예수님과 핵인싸들 전도폭발훈련학교 토요일
전도부 전도훈련학교 토요일

신당동 꿈나무들, 말씀따라 Jump up~!!!
김은미 성도(중구·용산교구)



장려상

※ 지면사정으로 일부만 실었습니다



함박 웃음 영락가족
이상현 집사(강동·송파교구)



우리가족 음악회
어유정 성도(서대문·은평교구)



3교구 30여전도회
문은희 집사(성동·광진교구)



특별상



아이들을 업고 말씀따라 행진하는 '부부선교회'
이하나 집사(종로·성북교구)



영락 가족사진 페스티벌에 대가족이 뭉쳤습니다
조지영 집사(고양·파주교구)



김운성 위임목사님 가족 “저희도 참여했어요”
김주용 성도(중구·용산교구)

▶43p에서 계속

전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제출된 사진을 규격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돌풍으로 인해 전시 패널이 넘어지고 파괴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 피해가 없었고, 비가 오는 등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시를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목사 4명, 장로 6명, 권사 회장, 영락포토 회장, 4남/4여 선교회장까지 모두 16명의 심사위원이 참여하여 매우 공정하게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모든 상에는 상당한 상금을 부여하여, 상을 받은 가정들은 큰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시상식 날에는 수상자와 가족 237명이 특별새벽기도회에 나와 본당 앞자리에 자리했습니다. 그 모습이 정말 특별한 축제의 한 장면을 보는 듯했습니다.

일부 참가자의 사진을 소개해드리면, 조지영 집사 가족의 사진 제목은 페스티벌의 주제에 정말 잘 어울렸는데, 제목은 ‘영락가족페스티벌에 대가족이 뭉쳤습니다’였습니다. 김주용 성도 가족의 사진은 사실 위임목사님 가족의 사진이었습니다. 바쁜 사역에도 불구하고 가

족과 함께 사진을 찍어 제출하시고, 섬김으로 본을 보여 주셔서 섬김상을 수여했고, 상금 대신 액자를 선물로 드렸습니다. 김준범 집사 가족은 마치 미리 사진전을 알고 계획한 것처럼, 하은이가 태어나기 전과 후에 같은 장소에서 사진을 찍어 제출했습니다. 이 사진은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대상을 수여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이 정성을 다해 소품을 준비하고 연출하여 기억에 남는 사진들을 많이 제출했습니다. 이런 분들 덕분에 전시회가 더욱 빛났고, 영광스러운 영락가족사진페스티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행사를 기획하신 위임목사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만남**



정경섭 장로
중구·용산교구
목양부장

여호와 이레

탄자니아 파송 두 달 만에
코로나19로 빈손 귀국

영락의 부름받고 선교부 사역
원망조차 감사기도로 바뀌어



김하영 전도사
선교부

NINAKUPENDA!

‘니나쿠펜다’ 알파벳으로 표기됐지만, 어떻게 발음해야 할지 낯설고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스와힐리어로 “사랑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2020년 2월에 아프리카 동부에 있는 탄자니아에서 이 단어를 처음 접했습니다. 신대원 졸업이 다가오면서 어떤 목회자가 돼야 할지, 어떤 사역을 해야 할지, 무엇보다 제 이름처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라는 곳을 선택한 이유를 특별히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믿고, 53회 총회 파송 견습선교사로서 아프리카 탄자니아 땅을 밟았습니다.

ASANTE SANA!

저는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에 있는 Grace Primary School(은혜초등학교)에서 선교사님을 도와 사역했습니다. 제 사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 관련 사역으로, 성경 수업, 방과 후 수학 수업, 축구 선교 등을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 관련 사역으로, 체육관 건축 및 학교에 필요한 자제들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시니어 선교사님의 사역을 배우며, 참으로 아름다운 자연 안에서 멋진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물론, 항상 행복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40도에 육박하는 날씨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고향을 떠나 낯선 곳에서 생활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 장벽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니,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전할 수 없는 점도 힘들었습니다. 방에서 하루를 마무리할 때 느끼는 외로움이 무엇보다 저를 두렵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의 삶을 인도해주시며 영원히 나와 함께하실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들을 하나하나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ASANTE SANA MUNGU(아산테 사나 뭉구-정말 감사합니다)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탄자니아에서의 삶을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COVID19

하지만, 이러한 감사의 마음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의 고백이 넘쳐서 더 열심히 노력하자고 다짐했던 시기에,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특히 의료시설이 열악한 아프리카는 더욱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시니어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평소보다 3배에 달하는 항공권 비용을 내며 마지막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을 텐데, 그게 아니었나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한 건가요?” 질문의 답을 찾는 동안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질문이 원망으로 변해갔습니다. “하나님, 그럼 왜요? 제가 기도하고 준비해서 그 땅으로 갔는데, 어려운 환경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갔는데, 왜 맡겨진 사역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2개월 만에 다시 돌아와야 했을까요? 복학도 못 하고, 다시 사역지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인도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해주세요.” 그런데, 놀라우신 하나님께서는 원망이 섞인 이 짧은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YOUNGNAK

그날 저녁에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영락교회 초등부에서 교육전도사를 급하게 찾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는 이미 5월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사역자를 구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사역을 쉬고 있으니 지원해 보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청빙이 되어 6

월부터 바로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1년 반 동안 초등부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며 사역하면서 훈련도 받던 중 감사하게도 2022년 1월에는 선교부 전도사로 부임하게 하시어 다양한 선교 사역을 보고 배우며, 선교에 대한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키셨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은 사역뿐만 아니라 삶의 길도 인도해주셨는데,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아내를 만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사랑하는 두 아들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원망 섞인 저의 기도를 감사의 기도로 바꾸어주셔서 선교의 열정을 다시금 갖게 하셨습니다. 또한, 탄자니아에서 급하게 돌아와 영락교회에서 사역하게 된 것은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필요한 준비와 훈련, 기도로 무장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가정은 이곳에서의 사역을 잘 마친 후, 다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모든 성도 여러분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남**



남편과 14년만에 데이트 부부간 ‘참대화’ 중요성 실감

어느 날 주보에서 부부학교 2기 모집 소식을 우연히 본 저는 본능적으로 신청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있는 토요일 오전에는 외출이 어려운 상황인데 Zoom 수업이라니 저희 부부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막상 신청할 당시에는 이 과정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에서 출발한 정통적인 부부학교 프로그램이며 외부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 유명한 코스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요즘은 변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지만, 예전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자동차, 가전제품, 가구도 한 번씩 교체할 시기인 만큼 부부간의 관계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가정마다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아무리 금실 좋은 부부라도 10년이 지나면 처음의 애뜻함은 사라진다고 합니다. 부부학교 과정을 배우면서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부부간의 촌수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은 알고 계시나요? 학창 시절 부모, 형제, 사촌 등의 촌수를

계산한 적이 있었지만, 부부간의 촌수에 대해서는 생각 해본 적이 없어서 이번에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촌수를 따질 필요도 없을 만큼 가장 가까운 관계라고 하는데, 10년 넘게 두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로 살아온 14년 차 우리 부부는 요즘 부쩍 서로의 관계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아이들의 일정을 챙겼는지 서로 점검하는 비즈니스 관계?’ 서로의 메시지와 카톡 대화 내용도 주로 “OO이 학원 잘 갔어? 간식 챙겨줘야 해...” “이번 주에는 수요일에 회식이 있고 금요일에는 친구들 만나는데, 그 날은 당신이 좀 일찍 들어와 줘!”와 같은 대화로 가득합니다. 하물며 “가끔 보면 당신 내 상사 같다”라는 장난스러운 말도 자연스럽게 오갑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본인의 생각을 글에 담을 용기를 얻게 된 것은 부부학교를 통해 세계 여러 나라의 부부 인터뷰를 보면서 이러한 고민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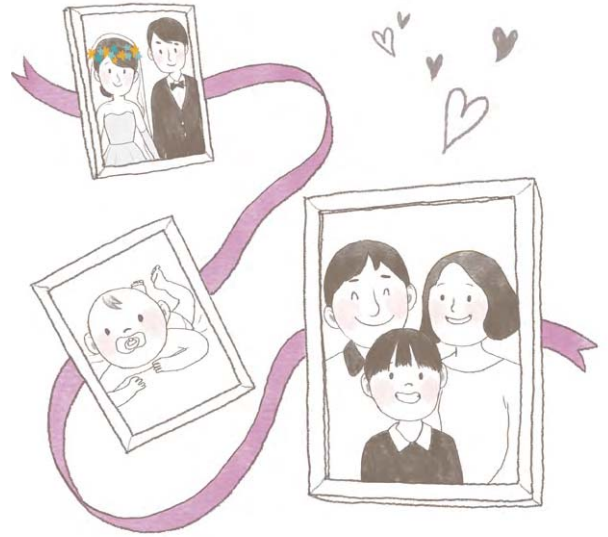


부부학교에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부부가 되어 살아 가면서 필요한 일곱 가지 주제를 다루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알려줍니다. 프로그램은 실제 부부인 '실리'와 '니키'가 자기들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각 주제를 다루며 이끌고, 세계 각지의 다양한 부부 인터뷰도 함께하여 교과서적 이론이 아닌 현실적 내용에 더욱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간에 억지로라도 해야 할 것이 '참 대화'임에도 그것이 얼마나 어색하고 어려웠던지 모릅니다. 특히 본인의 감정을 표현하면서 의견을 내놓고 상대방의 의견도 들어주는 것이 이렇게나 어려운 데도, 아이들에게는 대화를 권유했던 것인가? 순간적으로 부끄러웠습니다. 그동안 우리 부부의 대화는 주로 '일정 확인', '사실 확인'에 그쳤고, 내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았다고 속상해하고 화를 냈던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촌수 없는 부부관계, 서로 노력하는 게 참 중요

다시 촌수 계산으로 돌아가서, 부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촌수를 따질 수 없을 만큼 가장 가까운 관계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가 섞인 부모 자식 간의 관계보다도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한편, 달리 생각하면 피가 섞이지 않은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관계보다도 쉽게 끊어질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부부가 자녀, 공동명의 재산, 생활비 통장 등을 통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부부학교에서는 부부관계를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가 큰 노력과 참 대화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매주 부부 데이트 시간을 마련하여 서로의 감정과 의견을 표현해야 한다고



권합니다. 덕분에 몇 차례 데이트하면서 진정한 대화가 얼마나 어색하고 어려운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18)

하나님께서서 짝지어 주신 귀한 배필을 위해 친밀한 대화를 함께 나누는 것 역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을 기억하며, 이 도구를 통해 많은 크리스천 부부가 서로를 더욱 귀히 여기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만남**



이경은 집사
서초교구

나는 하나님의 광대입니다

- 37년 외길 박종호 성가사 간증·찬양집회

1987년 <내가 영으로>라는 곡을 시작으로 오랜 시간 찬양 사역자로 헌신해 온 박종호 성가사가 지난 6월 15일 영락교회 드림홀에서 열린 안수집사회(회장 강명옥 안수집사) 영성수련회에서 간증과 찬양집회를 가졌다. 1부 김운성 위임 목사 특강에 이어 박 성가사는 2부 <나의 나 된 것은> 무대에 올랐다. 평일 저녁임에도 약 4백여 명의 교인이 드림홀을 가득 메운 가운데 ‘다시 주님 앞으로 회복된 나’를 간증하고 노래했다. 집회 전 잠시 그를 만나 삶과 찬양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평소 영락교회에 관심이 있으셨는지요?

우리나라 목회자 중 특별히 김운성 목사님과 박영선 목사님(남포교회)을 가장 존경합니다. 어느 날 후배가 김 목사님 설교를 보내줬어요. 목사님께서 아버님 간증을 하시는데, 첫 청빙 교회에 부임하신 과정에서 아버님께서 “나는 김 목사가 목사 안수받던 날, 더 이상 우리에게 는 아들이 없으니, 이제 주의 종으로만 임하기를 바란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우리를 염려치 말고 기도하던 대로 처음으로 청빙받은 교회로 가시라” 했다는 말씀 들으며 무너졌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주일설교를 매일 아침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 와보니 영락교회에 친구들과 선배 들도 많으니, 마치 제 교회 같습니다.

요즘 근황은 어떠신지요?

저는 하나님의 광대입니다. 은혜 말고는 이야기할 게 없



죽음 맛본 간 이식...은혜 빼곤 말할게 없어
‘한국의 파바로티’가 왜 CCM으로?
내 재능,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려야죠

어요. 제가 노력한 건 하나도 없어요. 소리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남은 삶 하나님의 작품에 캐스팅된 작품에서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려고요. 부르시는 순간까지 어디든 보내신 곳으로 갈 겁니다. 죽음을 맛본 간 이식은 더 큰 믿음의 이식이었습니다.

이날 집회에 온 박 성가사의 모습은 예전 넉넉한 체격의 통 큰(!) 테너였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기에 충분한 변화였다. 2016년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되 살아왔다. 간경화에 간암이 겹쳐 간 이식 수술을 받았다. 식단 조절과 걷기 등으로 수술 전 1백kg 넘게 나가던 몸무

게가 70kg 안팎으로 빠졌는데, 수술 후 처음 석 달은 찬양은 커녕 소리내기도 힘들었지만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청명하고 맑은소리가 난다”라고 전했다.

서울대 성악과 재학 당시 ‘한국의 파바로티’로 불리며 대성할 수 있는 입지였는데 당시 CCM으로 전환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제가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분은 너무 광대하시고 말 그대로 “온 우주의 심포니”셨죠. 제 아버님은 불교신도회장님이셨는데 제가 찬양 가수를 한다니 집에서 나가라고 하셨어요. 굳이 사도바울의 고백이 아니어도 정말 다 배설물처럼 여겨졌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오히려 너무 큰 영광인 그분을 만난 거죠. 그런데 제가 성악가로서 가장 최고 순간에 찬양 가수가 되겠다고 했을 때 기독교인들도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났죠. 저로서 제가 가진 모든 게 최고라면 당연히 주인이신 하나님 외엔 더 이상 이걸 받으실 분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올해로 30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그 질문을 받고 있어요. 여전히 세상 가치로 평가되는 거죠.



CCM이 크리스천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제 첫 앨범이 88년 〈내가 영으로...〉가 없었으면 오늘의 박종호는 없었을 겁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찬양은 영으로 부르는 것...”이라고 점점 느낍니다. 악귀에게 괴롭힘 당하던 사울 곁에서 다윗이 악기를 타니 악귀가 떠났다고 성경에 쓰여있죠. 찬양이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 영의 임재를 노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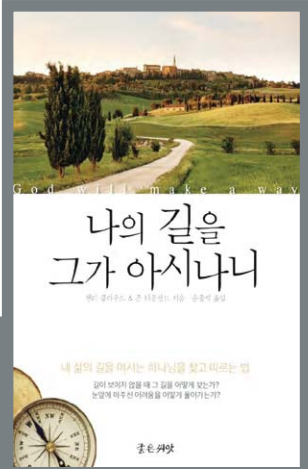
앞으로 CCM에 대한 바람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어느덧 찬양 가수로 37년째입니다. 음악은 그 시대의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CCM(Christian Contemporary Music)은 말 그대로 현대 기독교 음악 즉 시대에 통용되는 기독교 음악일 뿐이죠. 시대 변화에 따른 문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각자 자기 취향대로 다양한 장르도 인정하고 존중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음악을 하는 후배들에게) 록을 하다가 예수님을 믿으면 록으로, 힙합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면 힙합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어떤 수단과 도구가 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변하지 않으면 되는 거다”라고 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박 성가사는 “한국 사람들이 만든 좋은 시, 좋은 찬양, 찬양 가사 거기에 맞는 좋은 음악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번안이 많지만, 우리 정서에 맞는 찬양곡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라고 마무리했다. **만남**

취재 인미 기자

나의 길을 그가 아시나니 (God will Make a Way)



헨리 클라우드 & 존 타운센드 지음
윤중석 옮김 좋은씨앗, 2014년

영락교회 제자양육훈련 부서에서 진행하는 영어성경공부 과정에 사용할 교재를 고민하다가 이 책을 선택했습니다. 성도의 삶에 무언가 외닿을 수 있는 교제와 주제를 제공하기 위해서이지요. 한 학기 동안 영어 성경공부반 멤버들과 함께 이 책을 통해 많은 은혜를 나누면서 다른 성도님들에게도 이 책을 소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책은 Don Moen의 “God will make a way” (나의 가는 길) 찬양을 모티브로 했습니다. 저자들은 풍부한 임상 상담과 컨설팅을 통해 평범하고도 보편적인 상황들을 예리하게 꿰뚫어 일상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법과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과 다르다는 것을 토대로 이 책은 시작합니다. 제한과 유한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삶을 누리려면 창조주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삶을 의지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만 모든 문제와 상황에 대한 해답과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전달합니다.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과 길을 찾는 것이야말로 참된 소망과 희망의 첫걸음임을 상기시켜줍니다.

나의 길을 만들어주시고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초인간적인 능력과 힘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오로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데는 왠지 인색한 것이 우리입니다. 따라서 이 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여덟 가지 방법을 제시하며, 단지 삶이 힘들고 어두워서가 아니라 모든 신앙인에게 위로, 지혜, 절제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God will make a way”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십니다. 이 믿음의 행진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길을 찾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남**



정준희 목사
국제예배부

영락교회 은퇴제직상조회 신규가입 안내

주님의 몸 된 영락교회를 위해 오랜 세월 헌신 봉사하고 은퇴하시는 제직 여러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본 상조회에서는 은퇴하시는 제직이 상부상조하여 노후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은퇴한 제직만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본 상조회 회원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 **가입 자격** : 2022년도 은퇴 제직(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 **가입 기간** : 2023년 1월 1일(주일) ~ 12월 31일(주일)

▶ **가입 장소** : 50주년기념관 1층 회비 수납장소(은퇴제직상조회)

▶ **가입 절차** : 비치된 가입원서에 교회 교적부와 일치하도록 작성 및 날인하여 수납창구에 제출(가입원서는 수납창구에도 비치되어 있음).

참고사항

① 회원자격: <상조회 회칙 제5조 1항>

본회는 영락교회에서 제직으로 헌신 봉사하다가 정년이 되어 은퇴하신 교역자 및 장로(협동포함), 안수집사, 권사, 남녀 서리집사로서 은퇴 후 본회의 설립 취지에 찬성하여 가입 절차를 마친 자로 구성한다.

② 회비 납부의무: <상조회 회칙 제8조 2항>

- 가입비 : 10만 원(1회만 납부)
- 연회비 : 신규가입시 2만 원 그 후 매년 1만 원
- 부조금 : 정회원 별세 시마다 1만 원

③ 수혜사항: <상조회 회칙 제9조 1항, 8조 2항>

- 부의금 : 6,000,000원 지급 (수권자에게 지급)
- 회원 가입 후 만 17년(204개월) 이후부터는 부조금(1만 원) 납부 면제함<연회비 2만원>



기타 문의 사항은 영락교회 은퇴제직상조회 수납창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08시~16시까지 ☎ 02)2280-0238, 간사: 권철 안수집사 010-5339-5861>

제2여전도회, 십자군교회 헌당감사예배 드려

우리 교회가 1995년 지은 육군5사단 십자군교회(경기도 연천)가 리모델링 감사예배를 6월 16일(금) 드렸다. 김운성 위임목사, 조두형 목사(선교부 전담)와 선교부 관계자, 여전도회연합찬양대, 그리고 제



2여전도회 임원과 회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리모델링은 지난 3월부터 제2여전도회(회장 박옥경 권사)가 공사금액 전액 2억 6천만 원을 지원하여 진행되었다. 1부 감사예배는 박형곤 군종 목사의 인도로, 제2여전도회장의 기도, 여단장 류병춘 집사의 성경 봉독, 여전도회연합찬양대의 찬양에 이어 김운성 위임목사가 ‘이유를 가진 사람(사무엘상 17:28~30)’의 설교 제목으로 “장병들이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나라를 지키며 살아갈 때, 이 나라는 전쟁 없는 나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권면했다. 십자군교회의 특송에 이어 2부 헌당식은 건축 경과보고, 사단장 김홍준 집사의 인사말, 김운성 위임목사와 제2여전도회 회장에게 감사패 전달, 그리고 군선교연합회 사무총장 이정우 목사의 축사가 있었다. 제2여전도회는 준비한 간식으로 장병들을 위로하고, 헌당식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새롭게 단장된 예배 장소가 장병들의 신앙 강화에 도움이 되고, 거룩한 지성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제자양육훈련부, 상반기 성경통독반 종강식 가져



제자양육훈련부 2단계 일반성장과정 중 상반기 성경통독반이 3월 10일부터 6월 23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50주년기념관 503호에서 열렸다.

이번 통독은 18(용인·화성)교구 주관으로 박용준 목사

(18교구 담당)의 인도로 60여 명이 참여했다. 상반기 과정에서 박 목사는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아가서까지 통독한 성경 이야기들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여 복음의 진리를 잘 이해하게 하였다.

9월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과정은 이사야서를 시작으로 신약성경 요한계시록까지 통독하여 신·구약성경 1독을 마칠 예정이다. 금번 성경통독 참가자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새롭게 깨달아 여름방학을 잘 지내며 말씀과 기도 에 힘써 하반기 통독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사회봉사부, 거창구치소에 성경 100권·장서 1000여 권 기부



사회봉사부(부장 김두형 장로)는 5월 25일(목) 거창구치소(경남 거창군)의 도서관 개관을 축하하는 행사에 동참했다. 이를 위해 4월 23일과 30일 2주간 성도들이

18만㎡의 부지에 남녀 재소자 4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정시설과 청사동 총 12개 건물을 갖추고 있다.

기부한 1,000여 권의 일반서적과 성경·찬송 100권을 거창구치소로 전달했다. 김찬우 소장과 이 행사에 직접 참석한 사회봉사부 김충섭 목사 및 임원들은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신 영락 성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다.

거창구치소는 2011년에 준비하여

제공 사회봉사부 사진 원종석 집사

상담부, 1학기 영락상담대학 종강...46명 수료

우리 교회 전화상담원 양성과정인 (영락상담대학)의 1학기 16주 과정(2/26~6/18)이 종강됐다. 1학기 동안 이희철 교수(서울신대 상담학)의 '발달심리와 목회 상담' 강의를 통해 '발달의 전반적인 이해'와 '상담 현장에서 내담자를 돕는 방법'을 배웠다. 또한 이창규 교수(장신대 목회상담학)의 '집단상담의 이론과 실제' 강의에서는 집단상담을 통해 공동체 생활에서 나타나는 저항과 갈등을 다루는 방법을 여러 학자의 이론과 함께 배웠다. 이번 1학기에는 총 46명이 수료했으며, 이 중에는 4학기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는 5명이 포함되어 있다. 전 과정을 마친 5명은 실습, 오리엔테이션, 면담 등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으로 봉사하는 전화 상담원으로 섬기



게 될 것이다. 2학기는 신입생을 모집하여 8월27일부터 수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영락상담대학에 수강을 희망하는 분들은 문의해 주시고, 상담부의 전화상담 사역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문의: 상담부(봉사관 3층) 02)2280-0171
팀장 010-8713-4807

제공 상담부

What's Your Color? 영락 중·고등부 연합예배



중등부와 고등부는 6월 18일 50주년기념관 드림홀에서 'What's Your Color?'를 주제로 연합주일예배를 드렸다. 예배에서 '독특한 각자의 색이 어우러져 더 아름다운 색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했다. 중등부 이종실 목사는 '출애굽기 13:21~22' 말씀을 통해 '짧은 여행같은 삶에서의 성공이 전부가 아니다.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찬양, 기도,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기쁨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어려운 시기에 우리보다 앞서가며 함께하시는 권능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자'고 권면했다.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도 은혜를 나누는 예배자로 살기를 다짐하고, 파송의 찬양과 이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중·고등부는 6월 4일부터 4주 동안 한경직기념사업회에서 발간한 『한경직 공과공부』를 통해 '하나님과 나', '나와 이웃', '나와 물질'이라는 주제로 각 반별로 공부를 진행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9)'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답하여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이웃,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다음세대가 되기를 결단했다.

취재 최윤미기자

고등부, 설악수양관에서 제자양육캠프

고등부(부장 서상현 장로)는 6월 9일(금)~10일(토) 강원도 속초의 설악수양관에서 제자훈련 수료식을 가졌다. 7주간의 제자훈련이 끝난 이날, 성찬식을 통해 예수님의 피와 살로 세우신 새 언약을 확인하고, 서로를 사랑하기를 다짐했다. 토요일 오전에는 "은혜"라는 특송을 연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다. 예배와 성만찬 후에는 아아진 해수욕장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잠시 누렸고, 카페에서 각자 받은 은혜와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등 주 안에서 풍성한 교제를 나누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비가 내렸지만, 이 또한 더위를 식혀주는 선물처럼 느껴졌다. 제자훈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결단하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린다.

제공 고등부 정청대 전도사

CebC, 영락선교학교 열어 선교의 사명 고취



는 선교'를 배웠다면, 이번 방문은 '우리가 받았던 선교'에 대해 함께 생각하기 위함이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아동부 영어예배인 CebC(부장 이재학 안수집사)는 초등부 고학년을 대상으로 <영락선교학교(Youngnak Mission School, YMS)>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2023년의 주제는 '선교와 소명(Mission and Vocation)'이었으며,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 함께 '선교'에 대해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6월 24일(토)에는 마지막 일정으로, <양화진 외국인선교사모원>을 방문했다. 특강을 통해 '나가

복음이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시작되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 많은 믿음의 선배와 선교사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음을 깨달았다. 이 귀중한 복음을 함께 지키고 전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5월 28일 주일에는 CebC 학생들과 교사들의 기증품으로 플리마켓(Flea Market)을 열어 수익금 전액을 영락모자원에 기부했다.

제공 CebC 김지용 전도사

중등부, '청년 워십 페스티벌 및 청소년·청년 동영상 공모전' 동상 수상

중등부(부장 차남수 장로) 방송반(Y-NET)은 5월 27일(토)에 열린 '청년 워십 페스티벌 및 청소년·청년 동영상 공모전'에서 동상을 수상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다음세대비전위원회가 주최한 이 공모전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새 희망과 비전'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방송반 학생들은 '주님의 자녀로'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제작하여 코로나19 이후의 청소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역할과 정체성을 갖는지 탐색했다. Y-NET은 7년 전부터 활동하며, 영상이나 편집에 관심이 있는 45명의 학생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특별반이다. 학생들은 '엔터팀'과 '기술팀' 두 팀으로



나뉘어 작업하며, 각각 대본 기획 및 연구, 그리고 촬영 및 영상 편집을 담당한다. 이들은 미래에 미디어 예술 분야에 관심이 있고 재능이 있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특별활동반이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모리아, 하기선교를 앞두고 양화진 외국인선교사 모원 방문

청년부 모리아는 6월 10일(토) <양화진외국인선교사모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8월에 예정된 청년부 하기선교를 위한 훈련 과정으로 계획되었다. 100주년기념교회의 안내로, 과거 선교사들의 희생과 땀의 현장을 추적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의 역사를 다시 일깨우는 시간이 되었다.

청년부는 8월 12일(토)부터 15일(화)까지 충청남도 보령시, 청양로, 부여군 세 지역에서 하기선교 사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모리아 부지기 권호찬 형제는 선교사들로부터 이어받은 소중한 복음에 감사하며, 빛과 소금 역할을 할 수 있는 영락의 청년으로



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의 씨앗을 심어나야겠다는 선교 봉사의 열정을 전했다.

취재 안하윤 기자

영락사회복지재단, 대형 테마파크사와 업무협약 체결



영락사회복지재단(이사장 박홍준 장로)과 (주)씨엠지월드(대표 이선일 집사)는 6월 16일(금)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주)씨엠지월드는 다양한 캐릭터를 활용하여 테마파크를 운영하는 회사로, 국내에서 처음

으로 대형 키즈파크를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다. 이선일 대표는 영락교회의 교인으로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지난해 4월에 ‘어깨동무후원자모집캠페인’을 통해 영락사회복지재단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 이후, 영락보린원과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의 어린이들을 볼베어파크에 초청하여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영락사회복지재단과 (주)씨엠지월드는 앞으로 서로 협력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아이들에게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고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제공 영락사회복지재단

한국 교회 지도자·시민단체 “동성애 조장 차별금지법 반대”



영락교회서 법 제정 반대 연합기도회

〈희망의 대한민국을 위한 한국 교회 연합기도회〉가 6월 13일 우리 교회에서 개최되었다. 이 기도회에는 〈서울나쁜차별금지법반대기독교연합〉,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서울기독교총연합회〉 등 시민단체와 한국 교회 대표 지도자가 모였다.

기도회의 주 강사로 나선 김운성 위임목사는 ‘거룩한 분리’를 주제로 설교했다. 김 목사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셨지만 피조물이 창조주가 될 수 없으므로, 창조 질서에는 엄격한 분리가 존재한다”며 “차별금지법은 창조 질서의 거룩한 분리를 허무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영훈(여의도순복음), 오정현(사랑의 교회), 고명진(수원중앙침례) 목사도 각각 ‘진리와 자유’ ‘어떻게 세속적 문화를 변혁할까’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세대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설교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행사장 밖 광장에서 〈기독교세계관전문잡지 월드뷰〉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퀴어축제반대통합국민대회〉 〈극동방송〉 등 동성애 반

대단체가 홍보 부스를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작년 9월부터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목사들이 릴레이로 ‘차별금지법 반대’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특별히 김운성 위임목사는 대형교회 목사로는 처음으로 차별금지법 1인 시위에 참여하여 릴레이 운동의 신호탄을 쏘았다. 김 목사는 지난해 9월 29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결사반대’와 ‘장애인 차별금지법 등 20여 개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충분하다’는 문구의 피켓을 들고 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사를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지금까지 차별금지법 1인 시위 릴레이에 참여한 목회자는 김 목사를 비롯해 이재훈(온누리), 이찬수(분당우리), 이규현(수영로), 소강석(새에덴), 이영훈(여의도순복음) 목사 등이다. 김운성 위임목사는 현재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의 대표회장을 맡고 있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취재 이현지 기자

‘자율성 침해’ 사학법에…기독교 학교 정체성 ‘위청’

- 예정 총회 주최 ‘사학법 대책’ 세미나와 기도회, 우리 교회에서 열려
- 8개 기독교 학교 운영하는 영락교회, 사학법 문제 관심 지속해야



사립학교법 현황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총회 사학법재 개정대책위 세미나 및 기도회’가 6월 16일(금)우리 교회에서 열렸다. 현행 사학법은 교원 임용을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는 과정에서, 복음의 가치관을 가진 교육자를 선발하지 못하는 등 기독교 학교의 자율성 침해한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켜 왔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사학법재개정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김운성 위임목사를 비롯해 교단 이순창 총회장과 김보현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또 총회 사학법재개정위 전문위원 함승수 목사가 ‘기독교 학교 관련 쟁점 사항’을, 장로회신학대학교 박상진 교수가 ‘한국 교회 대응 현황과 향후 계획’을 주제로 발표했다.

특히 박상진 교수(오른쪽 사진)는 “기독교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배운 말씀을 가정과 학교로 연결하는 일관성인데,故한경직 목사님은 일찍이 이것을 깨닫고 대광·영락·보성학원 산하 8개 기독교 학교를 세우셨다”며 “이에 이번 사학법 재개정 촉구 행사가 영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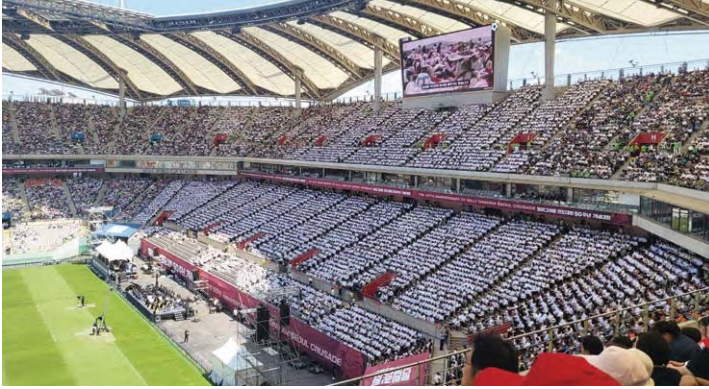
교회에 열린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사학법 재개정이 하루 속히 이뤄져 기독교 교육이 훼손되지 않도록 영락 성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 교회는 지난해 3월 사학법에 문제를 제기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7월 사립학교법 효력 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올해 3월에는 교육부 이주호 장관 한국 교회 대표단이 회의를 거치기도 했다.

취재 이현지기자



빌리 그레이엄 전도대회 50주년에 올려퍼진 1만 명의 찬양 하모니



사람이 참석하는 초교파적인 집회로 열렸다.

특히 이날 10,000명 안팎의 찬양대가 50년 전 ‘1973 빌리 그레이엄 전도대회’에서 부르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다시 불러 참석자들에게 큰 감동을 줬다. 찬양대의 지휘는 박신화 장로(갈보리찬양대 지휘자)가 맡았으

며, 500여 명의 영락교회 찬양대원이 참석하였다. 박신화 장로는 “지휘를 맡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퇴 선물이라고 생각했다”라며 “박자를 맞춘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 기회를 통해 한국 교회의 찬양대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6월 3일(토)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월드컵 경기장에서 <빌리 그레이엄 전도대회 5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이 행사는 음악회와 기념대회로 구성되었으며, “사람에게 진심으로, 하나님께 전심으로”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1부 기념 음악회, 2부 기념대회로 나뉘어 열린 이날 집회는 6,000개가 넘는 교회와 약 70,000명의

취재 인미 기자

차동혁 목사, 고척교회 위임목사로 위임식 가져

우리 교회 부목사로 사역하던 차동혁 목사가 6월 18일(주일) 고척교회에서 제3대 위임목사로서 위임식을 가졌다. 감사예배는 박대원 목사(서울서남노회장)가 인도했다. 김승민 목사(부노회장)의 기도, 고척교회 연합찬양대의 찬양에 이어, 이철신 원로목사의 설교 후 위임예식을 진행했다. 권면과 축하의 순서는 조재호 목사(고척교회 원로목사)의 축사, 김운성 위임목사의 축하영상, 영락교회 서초교구 늘사랑찬양대의 축가, 차동혁 위임목사의 감사 인사, 고척교회 1대 김제건 원로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차 목사는 2015년 1월 영락교회에 부임하여 노원교구와 상당



부를 시작으로 호산나찬양대, 신앙아카데미, 예배위원회, 음악부, 선교부, 서초교구 등을 담당하고 2022년 1월에 사임했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성전을 위한 그림 시리즈 1~3

Group X 표시된 작품으로
사후 20년이 지나 공개됨



“나는 아주 작고 하찮지만, 내 안에는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는 거대한 힘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이는 스웨덴 출신의 여성작가 힐마 아프 클린트(Hilma af Klint, 1862~1944)의 말이다.

2018년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열린 ‘힐마 아프 클린트 회고전’은 개관 이래 최대 관객 수를 기록하였으며, 전시 도록은 미술관에서 가장 많이 팔린 도서가 됐다. 그러나 칸딘스키나 몬드리안보다 먼저 추상화를 시작했지만, 북유럽에서 활동한 여성작가였기 때문에 그녀의 작품은 오랫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였다.

19세기말부터 20세기 초에는 눈으로 볼 수 없던 원자, 방사선 등의 존재가 과학의 발전으로 확인되었고,

이로 인해 보이지 않는 차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지학’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런 흐름 가운데, 그녀는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현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었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에 집중했다. 동시대 사람들은 그녀의 그림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녀는 다음세대를 대상으로 작품을 전하고자 선택했다. 1932년, 그녀는 자신의 노트에 연필로 “X”라는 표시를 하고, 그 아래에 다음과 같은 설명을 적었다 “위 표시가 있는 작품들은 내가 죽고 20년이 지난 후에야 개봉되어야 한다.” 이렇게 그녀의 작품은 타임캡슐에 담겨 미래로 향해 나아갔고, 그 대답은 우리 몫이 되었다. **만남**

글 정재원 편집위원

2023년 7월호 통권 593호

발행 2023. 7. 1.

발행인 김운성 지도목사 강승훈 편집인 김태영 편집장 권오란

편집위원 박순복 김재원 이형일 박선이 정용성 김성문 김성수 김윤영 류정현 안동현 안하윤 이동훈 이혜순 정재원

기자 김경옥 박진현 이재향 이현지 인미 최윤미 교열 계영희 이광미 유승효

발행처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주소 04552 서울시 중구 수표로 33 전화 02)2280-0114(대)

홈페이지 <http://www.youngnak.net> 디자인 design D.I

스마트한 e세상

만남 e-book

mannam.youngnak.net

만남 웹진

www.youngnakmn.net





현대판 방주 에반 올마이티... 기도의 전략 워룸

7/2 국제시장(Ode to My Father, 2014)

감독: 윤제균 주연: 황정민, 김윤진, 오달수 상영시간: 2시간 06분

‘가장 평범한 아버지의 가장 위대한 이야기’.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격변의 시대를 살아온 우리시대 아버지 ‘덕수’, 그는 하고 싶은 것도, 되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한번도 자신을 위해 살아 본 적이 없다. 오직 가족을 위해 굳세게 살아온 우리들의 아버지 이야기를 선사한다.



7/9 에반 올 마이티(Evan Almighty, 2007)

감독: 톰 새디악 주연: 스티브 카렐, 모건 프리먼, 로렌 그레이엄 상영시간: 1시간 35분

모든 일상이 술술 풀리던 에반에게 신이 나타나 워싱턴에 거대한 방주를 지으라는 미션을 내린다. 에반은 이를 무시하지만, 방주 만들 재료들이 배달되고, 수백 마리 암수동물이 따라 다니면서 그의 일도 가족도 생활도 모두 엉망이 된다.



7/16 워룸(War Room, 2020)

감독: 알렉스 켄드릭 주연: 프리실라 C.샤이어, 카렌 애버 크롬비, T.C.스탈링스 상영시간: 2시간

부동산 중개업자 ‘엘리자베스’는 성공 가도의 남편 ‘토니’, 사랑스러운 딸 ‘대니엘’과 함께 산다. 완벽해 보이지만 위태롭게 살던 그녀는 새로운 고객 ‘클라라 부인’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기반으로 한 기도의 힘에 관해 조언을 받는다.



7/23 불의 전차(Chariots Of Fire, 1983)

감독: 휴 허드슨 주연: 이안 찰슨, 벤 크로스, 니콜라스 파렐 상영시간: 2시간 3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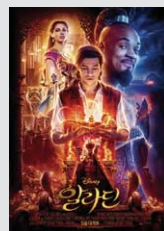
경주 영국 대표였던 에이브람스는 유대인이기에 당해야 했던 천대와 멸시를 이겨내기 위해 승리에 집착한다. 스코틀랜드의 선교사 지망생인 에릭 리들 선수는 일요일로 예정된 경기에 안식일이라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며 포기를 선언하는데...



7/30 알라딘(Aladdin, 2019)

감독: 가이 리치 주연: 미나 마수드, 윌 스미스, 나오미 스콧 상영시간: 2시간 8분

사막의 아그라바 왕국, 좀도둑 알라딘은 우연히 마주친 공주 자스민에게 마음을 빼앗긴다. 한편, 사악한 마법사 자파는 왕국을 손에 넣기 위해 마법의 동굴에서 램프를 탈취하려고, 동굴 접근 가능한 맑은 영혼의 알라딘을 이용할 계획을 세운다. 램프를 손에 넣은 알라딘은 램프 요정 지니가 들어준 소원으로 왕자의 모습으로 탈바꿈한다.



성전을 위한 그림 시리즈 1~3 (1915)

Altarpiece No.1~3, Group X, 1915

▶ 작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4페이지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힐마 아프 클린트(Hilma af Klint)

캔버스에 유채(Oil on Canvas)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 2018